

2019-CR-07

작은연구 좋은서울 19-11

양육 당사자가 만드는 갈등 없는 아이 키우기

임애리

임애리 정치하는엄마들
erina21@naver.com

김다희 말언어연구소 認
inureyes99@naver.com

이효진 정치하는엄마들
eyojin@gmail.com

‘작은연구, 좋은서울’은 시민 스스로 일상 현장의 문제를 연구하고
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연구원의 연구지원사업입니다.



**양육 당사자가 만드는
갈등 없는 아이 키우기**



연구책임

임애리 정치하는엄마들

연구진

김다히 말언어연구소 認

이효진 정치하는엄마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차

01 서론	1
1_연구배경 및 목적	1
2_연구내용 및 방법	6
02 설문 결과	9
1_설문 개요	9
2_구체적 양육 갈등 사례 파헤치기	10
3_서울시는 갈등 관리를 잘 하고 있는가?: 양육 갈등 관리에 대한 시민 인식	22
4_삶의 질, 사회에 대한 신뢰, 그리고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민 인식	28
5_양육 갈등 해소는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35
6_설문 결과 요약	38
03 심층 지면 인터뷰 결과	41
1_심층 인터뷰 참여자 정보 및 인터뷰 내용 개요	41
2_양육 갈등, 당사자의 이야기	43
3_갈등의 원인: 인식 부족, 제도와 규제 미비, 양육 정책의 우선순위	44
4_서울 시민이 바라는 갈등 관리	48
5_서울 시민이 원하는 양육 갈등 해소 방안	52
6_양육 관련 갈등 관리의 기대 효과	59
7_심층 인터뷰 결과 요약	64
04 논의	65

05 정책 제언	66
1_사전 갈등 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	66
2_양육 갈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정책: 참여 거버넌스 구축	68
참고문헌	72
부록	74

표 목차

[표 2-1] 서울시의 양육 관련 갈등 사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20
[표 2-2] 서울시의 양육 관련 갈등 사례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	20
[표 2-3] 서울시가 수행하는 민주적 갈등 관리에 대한 평가	22
[표 2-4] 시민들이 평가한 양육 관련 갈등의 주요(1순위) 원인	23
[표 2-5] 시민들이 평가한 갈등 관리 미비의 주요(1순위) 원인	25
[표 2-6] 세부적인 갈등 관리 방안별 필요성	25
[표 2-7] 시민들이 선택한 갈등 관리와 해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상	26
[표 2-8]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 조사	28
[표 2-9] 사회 갈등에 대한 인식	29
[표 2-10] 사회 현황에 대한 평가	30
[표 2-11] 사회 갈등 심각성에 대한 평가	31
[표 2-12] 다양한 사회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32
[표 2-13] 갈등 유형별 추정 갈등 발생 빈도	33
[표 2-14] 양육 갈등 해소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전망	35
[표 2-15] 양육 갈등의 현황 평가: 5년 전과 비교하여	37
[표 2-16] 양육 갈등의 미래 전망: 현재 대비 5년 후 전망	37
[표 3-1] 인터뷰 참여자 정보	41
[표 3-2] 인터뷰 참여자들이 경험한 갈등 사례 및 갈등 원인	43

그림 목차

[그림 2-1] 어린이집 급식비 차등 지원의 심각성	14
[그림 2-2] 돌봄 센터 차별 문제의 심각성	15
[그림 2-3] 일요 학원 휴무제에 따른 사교육 전망	17
[그림 2-4] 특수학교 설립에 찬성하는 이유	18
[그림 2-5] 공공갈등이 사회 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망	36

등이 심각한 정도를 파악하는 과정과 경로 또한 단선적이지 않다. 심지어 갈등을 경험하는 당사자들 또한 자신 외에, 갈등 발생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누구이며, 정확하게 어떠한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는지,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어떻게 소통을 시작하여야 하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갈등 양상을 파악하는 경로 자체가 복잡하기에, 갈등 해소를 모색하는 과정 또한 복잡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층간 소음을 둘러싼 공동주택 주민 간의 갈등에 대하여 살펴보자. 표면적으로는 이웃하여 거주하고 있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소한 갈등처럼 보이는 문제이나, 시비를 가리는 수준을 넘어 근본적인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더 많은 과정이 요구될 수 있다. 건축 및 소음 관리 관련 법 및 규정에 대한 숙지는 물론, 갈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하는 행정적 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는 사회 갈등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갈등 관리기본법 제정 및 갈등 관리 관련 법·제도개선을 위해 별도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산하 공공 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갈등 관리 지침 등을 배포하고 갈등 해결 프로세스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 서울시의 갈등 관리 사업과 그에 대한 시민의 인식

공공갈등은 시대에 따라 성격과 내용이 달라집니다. 민주화가 진행되고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은 조직화하여 국가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생존권뿐만 아니라 가치 등으로까지 인식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공무원은 갈등 당사자인 동시에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갈등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원인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법적인 원칙과 절차 외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적 분쟁해결 방법도 필요로 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법/제도상 사업 추진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2018 갈등 관리 매뉴얼(서울특별시, 2018) 발간사 中

서울시에서는 갈등 관리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갈등조정담당관 등을 만들어 시민의 갈등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결과로 나타나, 서울 시민들은 갈등이 다소 줄어들었으며, 갈등을 통하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하였다(신태현, 2018). 또한, 서울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여러 토론회, 위원회를 활발히 진행하여 시민 개인의 의견들을 실제로 정책에 다수 반영하는 등, 속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를 선도하는 지자체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고무적인데, 시민 참여 토론회, 위원회 등의 속의 민주주의 활동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건설적이며 널리 사용되는 갈등 해결 방식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힘의 우위를 확보하여 의견 또는 이해 관계를 관철시키려는 방식(power-based approach), 소송을 통해 권리와 법적·절차적 타당성을 따져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rights-based approach), 그리고 갈등하는 당사자 각각의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춰 대화를 통해 서로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이해관계중심 대화 접근(interests-based approach)이 그 세 가지이다. 이 세 가지 접근 방식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건설적이며,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을 꼽는다(박수선, 2015). 대화와 토론을 통해 서로 다른 의견을 대비하고 저울질하는 속의 과정은 직접 민주주의의 꽃으로 공론장의 상설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으며,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시민 참여 토론회, 위원회, 시민 의견 정책 반영 또한 공론장의 상설화, 대화와 토론을 통한 속의 과정에 해당한다. 다수의 개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갈등 해결 방식을 시정에 반영한 긍정적 사례를 통해 시민의 삶과 시정이 발맞추는 과정을 도모하는 서울시의 정책은 물론 바람직하나, 그 과정이 수월하기만 할 것으로 전망할 수는 없다. 서울시의 규모와 인구로 말미암아 볼 때, 서울 시민이 겪는 갈등은 사회적으로도 영향이 클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갈등을 마주하면 많은 사람들은 ‘양보와 타협, 상호 이해와 대화’가 문제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양보와 타협, 상호 이해와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 방식을 갈등에 직면한 당사자들에게 권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사람들조차도 실제 자신이 갈등 당사자가 되면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는 경향을 보인다. 자신에게 갈등이 발생하면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강한 주장을 펴거나 상대를 비난하여, 상대와 대결하여 이기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더 현실적, 효과적인 갈등 해소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박수선, 2015).

이와 같은 일반적 갈등 해소에 대한 맥락을 고려할 때,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할까? 물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서울시가 지금까지 뛰어난 역량을 보준 속의 민주주의적, 즉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관리일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상

적인 갈등 관리 방식이 서울에서 아이를 기르는 양육자들이 겪는 갈등에 있어서도 적용되고 있는가?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양육자들이 서울시의 양육 갈등 관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떠한 갈등 관리가 이상적이라고 인지하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서울시가 지니고 있는 뛰어난 갈등 관리 역량을 시민들이 갈등 현장에서 인지하고 있는지, 서울시의 갈등 관리를 어떻게 체감하며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나아가 서울시의 양육자들은 양육 갈등이 발생하였을 시 서울시가 어떠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기를 기대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이 원하는 서울시의 양육 정책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3) 양육자와 양육 갈등

양육자는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보호와 안전에 대한 1차적 책임 소재자로, 끊임없는 부담과 양육 노동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저출생 시대를 살아가는 양육자들은 수적으로도 소수의 입장에 처해 있는 약자이다. 양육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어떻게 대변하고 싶어 하며, 어떤 갈등에 노출되어 있으며, 어떤 갈등 해소 방식을 원하고 있을까?

관련 자료들을 통하여 양육자들이 처한 현실을 살펴보면, 양육 환경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속의 민주주의 모임 현장에서 양육자, 특히 영유아를 키우는 양육 당사자는 찾아보기가 힘들다(권현경, 2019a). 2020년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부분의 속의 민주주의 모임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기 이전까지, 각종 토론회나 위원회 등은 양육자 개인의 자녀 돌봄 문제로 비양육자들 대비 참석률이 현저하게 저조하였다. 이런 이유로 양육을 위한 토론회, 위원회에서 양육 당사자들의 의견은 아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가’들에 의하여 대체되었고, 양육자들의 직접 참여는 사실상 배제해왔으며, 이것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잠재 요인들이 되었다. 결국 이해 당사자들의 불신과 불만의 증가 그리고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을 보였고(장휘경, 2018; 강은나래, 2018), 국가적으로는 갈등에 따른 막대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

4)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양육자들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실행 과정에 반영하여 서울시와 양육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를 줄이고, 서울시와 양육자가 미래 세대를 함께 양육하는 첫걸음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서울시와 양육자 간의 갈등 이

외에도, 시정 또는 시의 결정에 서로 다른 지역의 양육자, 서로 다른 성격의 아동을 양육하는 양육자 간에 대립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과밀 사회인 서울시에서 양육자 및 미성년자들과 밀접하게 지내게 되는 비양육자들도, 양육 관련 갈등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양육자들이 자신의 입장과 이익이 타인의 입장이나 이익과 배치될 때, 어떻게 갈등을 해소하고 협의점을 찾을지에 대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양육자와 양육자를 모두 포함하는 양육 관련 당사자들과 서울시에서 결정하고 실행 중인 양육 관련 정책들에 대해 열린 토의를 함으로써 양육자들이 양육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조사한다. 양육자들의 의견을 분석하여, 양육자와 서울시 간에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원인에 대하여 파악하고 갈등 예방 및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서울시에서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양육자들이 경험하는 갈등 사례와 특징 및 정책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 주요 부문의 갈등 내용, 전개, 그리고 해결방법 등에 대한 사례조사와 사회 인프라, 서울시의 갈등 관리 정책에 대한 분석 등을 토대로 서울시 양육자들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_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의 구성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설문 조사와 심층 인터뷰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의 정책 중 양육과 관련된 갈등이 개입된 사례를 우선 조사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양육과 관련된 사회 갈등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즉, 양육 관련 사회 갈등의 특징과 이러한 갈등에 대한 시민 의식, 정책수요 등에 대해서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와 함께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대상자는 양육자와 비양육자, 연령대 및 성별을 가능한 한 다양하게 구성하여 양육 관련 갈등 상황에 대한 다양한 반응과 의견을 수집분석하고자 한다.

2) 설문 대상자 및 연구 방법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인구학적 특성 즉, 양육 여부(양육자, 비양육자), 연령, 성별을 다양하게 하여 양육 관련 갈등 상황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청취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육자들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선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서울시의 구체적 양육 갈등을 알아보기 위한 사례 발굴을 위해 2019년 1년간의 기사 중 ‘서울’, ‘갈등’, ‘양육’, ‘아동’, ‘학생’, ‘임산부’, ‘저출생’ 키워드를 기반으로 네이버 및 구글을 검색하였다. 이 결과에서 서울시청 및 서울시교육청 등 관의 직접적인 정책과 무관한 갈등들(노키즈존 갈등 등)을 제외하여 총 일곱 가지의 양육정책과 관련된 사례를 선정하였다.

설문 문항 중 갈등에 대한 추상적 질문은 중앙정부의 공공갈등 관리 실태분석 및 효과적인 갈등 관리 방안 연구(임동진·김재일, 2010)와 디지털 사회 갈등의 새로운 양상과 사회통합의 정책방향(이원태 외 2012)을 참고하였고, 구체적 사례 관련 질문은 학원일요 휴무제 관련 시민참여단 의견 조사(김수연·강동웅, 2019), 특수학교 관련 의견 조사(강원도교육청 학생기자단, 2018), 임산부 좌석 배려 캠페인에 대한 인식 조사(<https://infogram.com/--1gk9vp17qd45p4y>)를 참고하였으며, 기타 갈등 사례 관련 문항은 해당 기사들을 기반으로 연구진이 직접 제작하였다. 설문 문항은 본 보고서의 부록에 첨부하였다.

온라인 설문은 2020년 2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참여한 시민은 총 211인이었다. 응답을 기반으로 연속된 문항에 동일한 답변을 과도하게 반복한 8명의 응답을 제외한 응답자 203인의 자료를 기반으로 설문 결과를 정리하였다. 설문 결과 분석에 사용된 자료를 제공한 203명 중 59%인 119명이 양육자, 41%인 84명은 비양육자였다. 첫 아이를 임신한 경우는 비양육자에 포함하였다. 인적 정보는 양육자 여부, 양육의 형태, 연령, 성별, 정치 및 사회에 대한 관심도, 공공기관 근무 경험 등을 포함하였다.

조사 항목은 크게 현재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사회 갈등 전반 및 사회 현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로 시작하여, 구체적으로 양육 관련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도, 서울시에서 최근 일어난 양육 관련 갈등에 대한 인지도 조사, 양육 관련 갈등이 생겼을 시 갈등을 해소하여야 하는 주체는 누구이며, 서울시의 갈등 관리에 대해 만족하는지 여부 등으로 조사 문항은 약 11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문항에 대한 응답과 인적 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와 같은 설문 응답을 통해 설문에 참여한 서울 시민들이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양육 관련 갈등 사례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서울시의 갈등 관리에 대해 어떻게 인지·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중점적으로 살펴본 비는 상기 설문 응답에 있어 양육자에 특징적인 양상이 있는지의 여부였는데, 이를 통하여 서울시의 양육자의 현황 및 양육자가 체감하는 양육 관련 갈등의 심각도, 서울시의 갈등 관리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았다.

3) 심층 지면 인터뷰 대상자 및 연구 방법

설문 조사에 참여한 시민 중 실제 경험한 양육 관련 갈등 사례가 있다고 응답한 양육자 및 비양육자에게 서면 심층 인터뷰 참여를 요청한 결과, 10인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중 비양육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2명), 실제 갈등 사례를 경험하지 않은 비양육자 1인을 추가 모집하여 총 11명의 대상자에게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서면 인터뷰는 이메일 및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2020년 6월 4일부터 18일까지 시행되었다.

본 연구의 진행이 사회적으로 특수한 상황(예컨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서 진행됨에 따라 오프라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통의 심층 인터뷰 방식을 따르지 못했음을 명시한다. 이에 따라 이메일과 온라인 메신저를 통한 심층 인터뷰 진행

이 가능했는데, 오프라인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자 현장감을 최대한 유지하는 수단으로 실시간 온라인 메신저 인터뷰 방안을 활용하였다. 이메일 설문은 경우 이메일로 문항을 송부한 후 2일 이내에 답신할 것을 요청하였다. 온라인 메신저 설문은 경우 연구원과 실시간 대화 방식을 통하여 이메일 설문에는 문항들을 소재로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에 참여하여 성실히 응답한 시민들에게는 소정의 인터뷰 참가비가 제공되었다. 본인이 경험한 갈등의 양상, 해당 갈등 상황에서 본인이 도출한 갈등의 원인, 서울시가 수행한 갈등 관리에 대한 평가, 서울시의 갈등 관리에 있어 아쉬웠던 점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응답자들의 심층 지면 인터뷰 결과를 통하여 양육 갈등 현황과 특징, 갈등의 배경과 원인, 주요 쟁점과 전개과정, 갈등 관리 및 해소과정 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체계적으로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지면 인터뷰의 말미에는 참여자들에게 양육 관련 갈등이 심각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양육 관련 갈등이 해결될 때 사회의 어떠한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를 통하여 시민들이 생각하는 양육 관련 갈등의 기저 원인과 시민들이 원하는 현실적 시정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분석을 기초로 양육 관련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02. 설문 결과

1_설문 개요

설문 문항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서울시에서 양육과 관련하여 발생된 각 사례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가?

둘째, 현재 서울시의 갈등 관리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며, 어떠한 갈등 해소법을 원하는가?

셋째, 현재의 삶과 사회 및 사회 갈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가?

넷째, 양육 관련 갈등이 해소되면 서울시에 어떠한 긍정적 변화가 초래될 수 있는가?

위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 설문에 참여한 서울 시민들이 양육 관련 갈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서울시의 갈등 관리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또 어떠한 갈등 어떤 해소법을 원하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나아가, 시민들이 현재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으며, 미래에 양육 갈등이 어떻게 진행될지, 양육 갈등이 해소되었을 때 서울시에 일어날 긍정적인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전망하여 보았다. 이를 통하여 시민들이 양육 관련 갈등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며, 시민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양육 갈등의 해소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하였다. 설문 결과 분석에 있어 특히 중점적으로 살펴본 바는 상기 설문 응답에 있어 양육자에 특정한 양상이 있는지의 여부였다,

당사자로서 양육자들이 서울시에서의 삶의 질을 어떻게 인지하며, 사회 현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양육 갈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지하며 각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비양육자들과의 응답과 비교하여, 서울시에서의 양육의 현주소 및 양육자가 체감하는 양육 관련 갈등의 심각도, 서울시의 양육 갈등 관리에 대한 평가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_구체적 양육 갈등 사례 파헤치기

본 설문에서는 서울시에서 양육과 관련하여 갈등의 대상이 된 구체적 사례에 대한 시민 인식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구체적 갈등 관련 사례는 임신부 전용 공간 관련 갈등, 단지 내 어린이집 관련 갈등, 어린이집 급식비 차등 지원 관련 갈등, 돌봄 센터 관련 갈등, 송정중 폐교 관련 갈등, 학원 일요 휴무제 관련 갈등, 특수학교 관련 갈등으로 선정되었다.

설문 내용은, 각 갈등과 관련한 시민들의 경험에 대해 묻고, 시민들이 갈등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는지 등이었으며, 각 설문 결과에 대하여 양육자와 비양육자 사이에 응답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설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서울시 양육 갈등 사례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임신부 전용 공간

임산부 전용 공간과 관련한 갈등으로는 지하철 임신부 배려석 및 임신부 전용 주차공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지하철 임신부 배려석은 도입 7년째로, 서울교통공사에서 3년 전부터 배려석을 양보하지 말고 아예 비워두자고 권장하고 있어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박성은, 2019). 2019년부터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에 도입된 임신부 전용 주차공간은 공간이 비좁아 차를 타고 내리기 힘들었던 임산부가 차량 문을 여유 있게 열고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며(고영득, 2019), 주차장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갈등 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설문의 응답자에는 11인의 임부(임신 초기 4인, 중기 5인, 후기 2인)와 62명의 임신 경험 있는 이들이 포함되었다. 대중교통에서 임산부에게 좌석을 배려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해당 문항에 응답한 192인의 응답자 중 96%를 차지하는 184인의 응답자가 임산부를 위해 일반 좌석, 임신부석, 노약자석을 양보하거나 임신부석을 일부러 비워두었다고 답하였다. 총 응답 중 4%(양육자 중 2%, 비양육자 중 7%)만이 좌석을 배려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좌석 배려의 형태로는 일부러 좌석을 비워둔 경우가 두 그룹에서 공히 가장 빈번하였고(양육자 중 69%, 비양육자 중 71%), 다음으로는 임신부석이나 일반 좌석을 양보한 경우가 뒤따랐다. 노약자석을 양보하는 경우는 극소수였는데, 주 응답자들의 연령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임산부에게 좌석을 배려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극소수에 속하였으나, 그럼에도 좌석을 배려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하여 보았다. 좌석을 배려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중교통에서 임산부를 본 적이 없어서, 내가 힘들어서, 임산부인지 몰라서, 자리를 양보해야 하는지 몰라서 등의 응답이 있었다.

응답 인원 중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 표식 착용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다. 총 11명은 임산부 표식을 착용한다(5인), 하지 않는다(4인), 예전에는 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2인)로 그 응답이 서로 달랐다. 임산부 표식을 착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표식을 착용해도 혜택과 배려가 없어서(응답 수 4), 타인에게 양보와 배려를 강요하는 느낌이 들어서(응답 수 3)가 가장 응답수가 높았고, 기타 응답으로는 알리기 싫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아서, 임산부 시설이 많지 않아서 등이 있었다. 관련하여, 임신 중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5건 있었는데, 임신 중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면 그 원인을 찾아 임산부도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임산부 배려의 초점이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수단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만 응답 인원 중 임산부 응답자의 수가 대단히 소수였기에, 소수의 응답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시행에 대한 평가로는, 양육자의 경우 안 되고 있다(48인, 40%) > 상황에 따라 다르다(36인, 30%) > 잘 되고 있다(27인, 23%) 순으로 응답이 나뉘는 반면, 비양육자는 안 되고 있다(27인, 32%)와 잘 되고 있다(27인, 32%)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22인, 26%)가 그 뒤를 따랐다. 흥미로운 점은 임산부 배려석 시행이 잘 되고 있다는 평가가 비양육자 그룹에서 높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응답의 차이는 양육자와 비양육자들의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기대의 차이를 의미한다.

임산부 배려석이 잘 시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임산부석이 의무가 아니며, 초기 임산부의 경우 드러나지 않아서, 스마트폰을 하느라 미처 보지 못해서, 라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임산부 배려석 이외의 임산부 전용 공간인 임산부 전용 주차공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양육자 중 63%, 비양육자 중 65%가 임산부 전용 주차공간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산부 전용 주차공간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는 양육자 그룹에서 찬성 의견이 78%로, 비양육자 그룹에서 나타난 찬성 의견 비율인 70%보다 높았다. 임산부 전용 주차공간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5점 척도(1번 = 전혀 그렇지 않다, 5번 = 매우 그렇다)로 평가하도록 한 결과, 양육자들의 응답

평균이 2.33점이었던 반면 비양육자의 응답 평균은 2.58점으로, 비양육자가 운영이 더 잘 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시행 평가에 대해서도 비양육자가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과 동일하였다. 즉, 전반적으로 양육자보다 비양육자들이 임산부 전용 공간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보인 응답을 통계 검증을 통해 비교하였을 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임산부 전용 공간과 관련한 기타 의견으로는 양육자의 경우, 임산부 전용 주차공간과 여성 우선 주차공간이 혼동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비양육자의 경우, 임산부는 소수이므로 별도의 주차공간이 필요한가의 여부 자체에 의구심을 품는 의견이 있었다. 또는 더 강한 임산부 배려 조치, 즉 임산부 대상의 주차 대행, 임산부에게 주차비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임신 중에는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한다는 응답과 종합하여 살펴볼 때에, 정책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며 파급력 있는 임산부 배려 정책에 대한 제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2) 단지 내 어린이집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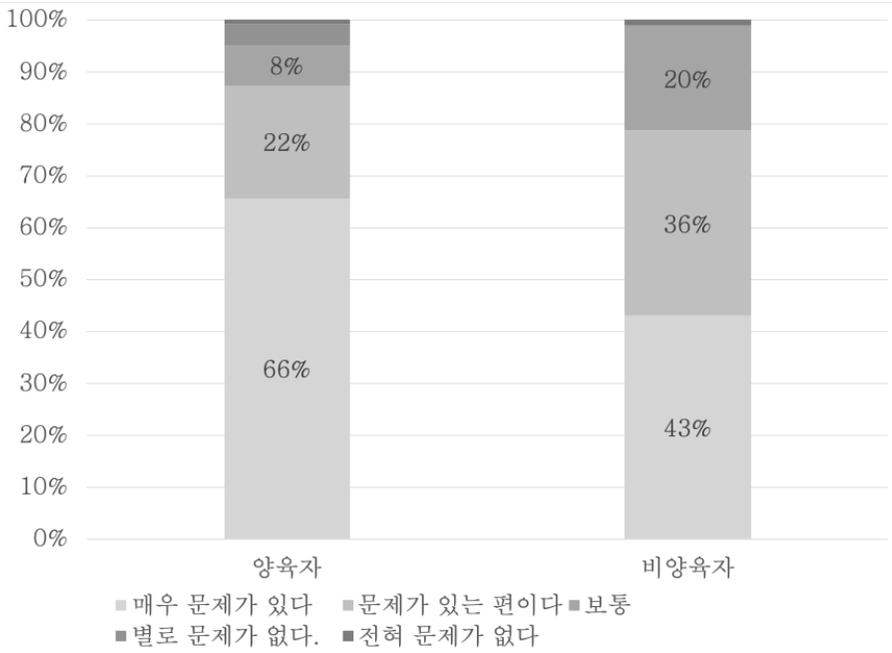
다음 양육 관련 사례는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 문제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확충하면서 소음과 집값 하락을 이유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이다(김영선, 2019).

단지 내 어린이집 신설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음에 대한 인지도는 양육자 집단에서 48%, 비양육자 집단에서 46%로 나타나 집단 간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 단지 내 어린이집 신설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양육자 중 94%가 찬성 의견을 피력하였고, 비양육자 중 88%가 찬성 의견을 피력하여 전반적으로 시민들은 단지 내 어린이집의 설립에 찬성하며, 특히 양육자들이 많은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어린이집 신설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구체적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찬성하는 이유로는 거리(집에서 어린이집까지의 거리가 가까움), 안전, 양육 편의가 주로 꼽혔고, 반대하는 이유로는 소음 문제가 가장 크게 거론되었다. 기타 소수 의견으로는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신설된다고 하여도 실제로 어린이집에 들어가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에 양육과 맞닿아 있지 않다는 의견, 어린이집은 만들지만 노인 센터는 왜 만들지 않는가, 라는 의견 등도 존재하였다. 즉, 양육의 필요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고 싶으나 양육 외에 다른 방면에도 공공 예산이 사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피력되고 있었다.

3) 어린이집 급식비 차등

본 설문에서 살펴본 세 번째 양육 관련 갈등은 어린이집 급식비 차등 지원과 관련한 갈등이다. 어린이집 급식비 차등은 어린이집 급간식비의 하루 기준이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은 평균 3,000원 이상, 민간 어린이집은 최저기준이 1,745원이어서 양육자의 직업에 따라 급식비 차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말한다(권현경, 2019b).

공무원 직장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액수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양육자 중 38%, 비양육자 중 21%가 해당 갈등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약 17%가량의 인지도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역시 양육 당사자가 어린이집의 운영 및 다양한 어린이집의 보육, 지원 등에 대해 인지할 가능성이 높음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어린이집 급식비 차등 지원 문제가 심각한 정도에 대한 평가를 매우 문제가 있다 - 전혀 문제가 없다, 를 양 척점에 둔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양육자들이 어린이집 급식비 차등 지원에는 매우 문제가 있다, 내지 문제가 있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88%)이 비양육자들이 해당 응답지를 선택한 비율(79%)보다 약 9%가량 높았다. 양육자와 비양육자들이 어린이집 급식비 차등 지원이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그림 2-1에 요약하였다.



[그림 2-1] 어린이집 급식비 차등 지원의 심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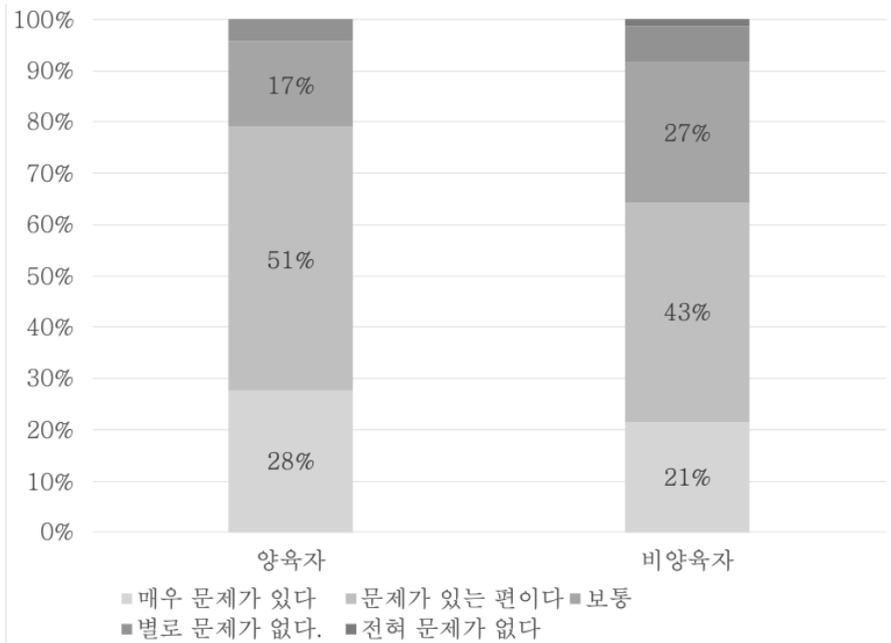
시민들에게 어린이집 급식비 차등 지원과 관련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시민들은 모두 평등하게 지원해야 한다, 정부 주체가 결정을 해야 한다, 해당 갈등을 공론화해야 한다, 급식비 지원액을 상향 평준화해야 한다, 공무원에게만 국한되어 지원되는 특혜를 삭감할 필요가 있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4) 돌봄 센터

네 번째로 살펴본 양육 관련 갈등은 돌봄 센터와 관련된 갈등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중위 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최근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의 여러 돌봄 시설이 개소하면서 양육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아이들의 돌봄 기관이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박의래, 2019).

온종일 돌봄 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차별 대우 내지 낙인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설문한 결과, 양육자의 59%와 비양육자의 56%가 돌봄 센터와 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차별과 낙인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 두 집단 사이의 인지도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다.

방과 후 돌봄이 저소득 아동 이용 기관과 그 이외 아동 이용 기관으로 나뉘는 양상에 대한 평가를 매우 문제가 있다 - 전혀 문제가 없다, 를 양 척점에 둔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한 결과, 양육자들이 돌봄 센터에 대한 차별 대우에 대해 매우 문제가 있다, 내지 문제가 있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79%)이 비양육자의 응답 비율(64%)보다 현저히 높았다. 각 그룹이 평가한 돌봄 센터 차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응답은 그림 2-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림 2-2] 돌봄 센터 차별 문제의 심각성

이는 즉 동일한 양육 관련 갈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더라도, 해당 사안에 얼마나 문제가 있으며, 얼마나 심각한지의 여부를 체감하는 양상에 있어서는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차이를 고려할 때, 양육 관련 사안의 평가에 있어 양육자의 의견이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비양육자와 양육자의 평가를 종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자유로이 해당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기술해달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아동 돌봄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소수 의견으로는 현업에 종사 중인 사회 성원들의 요구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같은 응답은 돌봄 센터 문제와 같은

다원적 갈등의 기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당사자 이외에도 다양한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5) 송정중 폐교 문제

본 설문을 통해 살펴본 다섯 번째 양육 관련 사안은 송정중 폐교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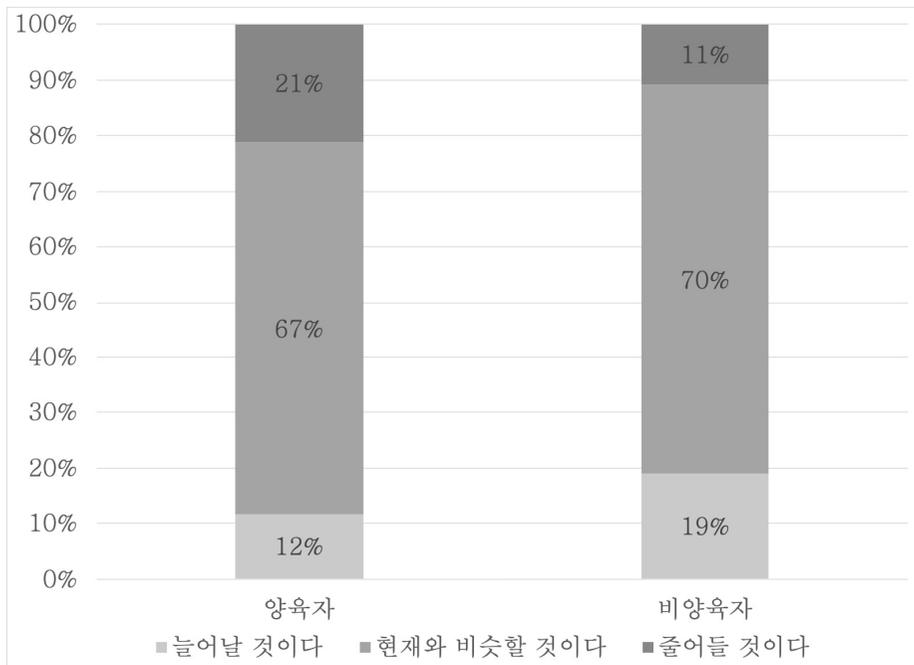
송정중 폐교 문제는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폐교 대상 학교에 혁신미래자치학교 지정 등 여러 행정적 문제와 폐교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했던 경우이다(구무서, 2019).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양육자의 22%가 인지하고 있었던 반면, 비양육자 중 해당 사안에 대해 과거에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이는 12%에 불과하였다. 즉, 비교적 크게 드러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양육 여부에 따라 사안에 대한 인지도가 달라질 수 있음이 드러난다. 교육청 및 지자체가 주도하여 학교를 설립 또는 폐교하는 데에 대해서는 양육자의 61%, 비양육자가 49%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양육자 집단에서 반대 의견의 비율이 비양육자 집단보다 약 12% 가까이 높았던 것 역시 사안에 대한 의견의 강도가 시민의 현재 양육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더불어, 학교의 설립과 폐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해 질문한 결과, 두 그룹 공히 학습권, 학생의 통학 거리 및 안전, 교육청 운영의 효율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양육자의 경우 학습권(39%), 통학 거리 및 안전(33%), 교육청 운영의 효율성(24%) 순서로 학교의 설립 및 폐교에 중요한 요인을 꼽은 반면, 비양육자는 학습권(45%), 통학거리 안전(25%)에 비해 교육청 운영의 효율성(12%)의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이 외에도 소수 응답으로는 학교의 설립과 폐교에 지역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응답(양육자 중 3인, 비양육자 중 6인), 학부모의 편이가 중요하다는 응답(양육자 중 1인, 비양육자 중 6인) 등이 있었다. 흥미로운 지점은 비양육자 중에서보다 실제 학부모인 양육자 중에서 학교의 설립과 폐교에 학부모의 편이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인 이들의 비율이 더욱 소수로 나타났다. 양육자가 실제 학교 운영의 주체 중 하나인 교육청의 효율성의 중요도를 높게 꼽았다는 점이다. 미성년자인 아동을 평가하고 보호하는 기관에 대하여 양육자가 을의 위치에 서서 드러나게 갈등 이슈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보다는 관의 정책을 집행을 배려하거나 견디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갈등 해결에 대한 다른 정책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시사된다.

6) 학원 일요 휴무제

본 설문에서 살펴본 여섯 번째 양육 관련 갈등은 학원 일요 휴무제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일요일에 학원을 의무적으로 쉬게 하는 학원 일요 휴무제를 공론화한 것으로, 학생들의 휴식권 보장과 사교육의 음성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조아름, 2019).

학원 일요 휴무제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는 양육자의 48%, 비양육자의 36%가 인지하고 있어, 해당 갈등 및 사례에 대해서도 양육자들이 더 높은 인지도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요일에 학원이 휴무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찬반 의견에 있어서는 양육자 중 82%, 비양육자 중 64%가 일요일에는 학원이 휴무를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학원이 일요일에 휴무를 할 경우, 사교육 전망에 대해 질문한 결과 양육자 중 21%, 비양육자 중 11%에 해당하는 시민들이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학원 일요 휴무제에 따른 사교육을 전망한 바를 양육자, 비양육자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 요약한 결과는 그림 2-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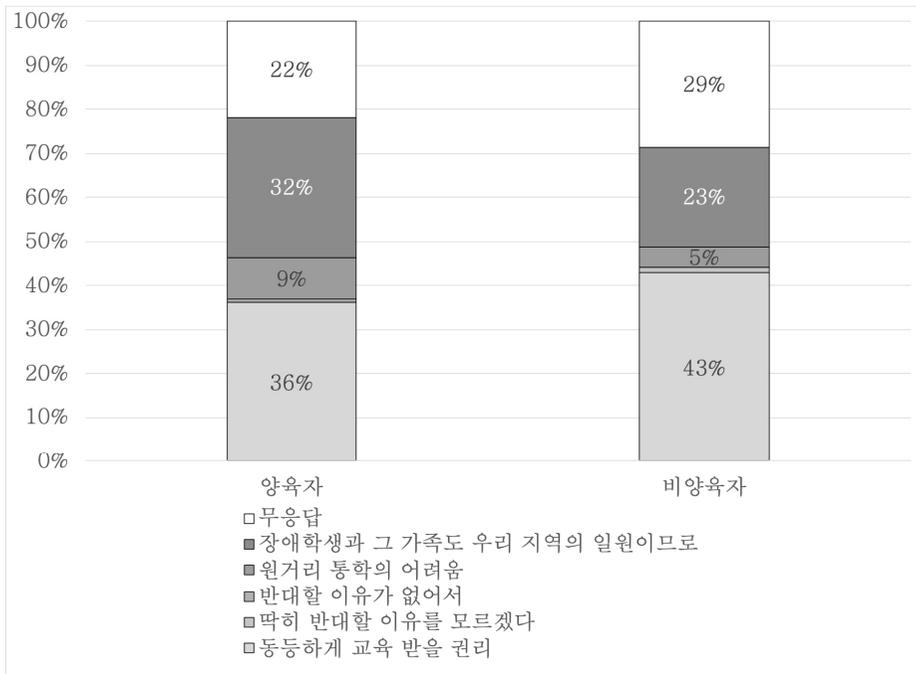


[그림 2-3] 일요 학원 휴무제에 따른 사교육 전망

7) 지역 특수학교 설립

본 설문에서 살펴본 일곱 번째 양육 관련 갈등은 강서구 특수학교 신설과 관련한 사례이다. 강서구 서진학교는 주민들의 반대와 민원으로 개교가 세 차례 미뤄진 국공립 신설 특수학교이다(권오진, 2019).

강서구의 특수학교 신설과 관련해서는 양육자의 66%, 비양육자의 49%가 알고 있어, 앞선 양육 관련 사례들과 동일하게 양육자의 갈등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만일 집 근처에 특수학교가 신설된다면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으로는 양육자의 78%, 비양육자의 71%가 찬성 의견을 선택하였다. 설문 참여자 중 대다수가 특수학교 신설에 찬성하였으며, 특히 양육자의 경우 찬성 인원의 비율이 높았음이 두드러진다. 특수학교 신설에 찬성하는 이유를 질문하였는데, 이에 따른 응답을 요약한 바는 그림 2-4와 같다.



[그림 2-4] 특수학교 설립에 찬성하는 이유

양육자와 비양육자 집단에서 공히 특수학교 신설에 대해 공통적으로 긍정적, 찬성의 입장을 보인 것과 달리, 그 이유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두 그룹 모두에서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장애학생과 가족이 지역의 일원이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주를 이루었다(양육자 중 87%, 비양육자 중 92%). 그러나 양육자는 장애학생이 가진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장애학생도 지역의 일원이라는 선택지를 비슷한 빈도로 선택한 반면, 비양육자의 경우는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43%)를 특수학교 설립을 찬성하는 이유로 선택할 확률이 장애학생 및 학부모도 지역의 일원이므로(23%)를 택한 확률보다 20%가량 높았다.

8) 그 외 양육 관련 갈등에 대한 의견

본 설문은 앞서 다룬 임신부 전용 공간 관련 갈등, 돌봄 센터 관련 갈등, 송정중 폐교 관련 갈등, 단지 내 어린이집 관련 갈등, 어린이집 급식비 차등 지원 관련 갈등, 학원 일요 휴무제 관련 갈등, 특수학교 관련 갈등 일곱 가지 이외의 양육 관련 갈등에 대한 문항도 포함하였다.

설문 대상자에게 상기 명시한 사례 이외의 양육 관련 갈등에 대해 어떤 것들을 알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이에 양육자 집단에서는 고위험 임신부 및 난임 지원 문제, 성동구치소 부지 학교 설립, 급식, 가정 어린이집 관리, 학교 신설 필요성, 지역 내 장애학교, 유치원의 횡령 문제, 임신부식, 아이 돌봄 사업,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결석 관련, 급식비 지원금의 차이 등과 관련된 응답을 하였다. 반면, 비양육자 집단에서는 어린이집 추첨, 기초수급자의 혜택, 양육 수당, 자사고 폐지, 장애학교 설립 등의 응답을 하였다. 요약하자면, 양육 여부에 따라 시민들이 인식하고 체감하는 갈등의 유형이나 양상이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양육 관련 갈등의 인지도 및 체감 심각성에서 현저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

9) 각 갈등 사례별 인지도 및 심각성 비교

설문 조사에서 조사 항목으로 선정한 양육 관련 갈등 사례의 인지도를 정리한 결과는 표 2-1과 같다.

[표 2-1] 서울시의 양육 관련 갈등 사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양육 관련 갈등	양육자	비양육자	차이
임산부 전용 주차 공간	63%	65%	-2%
돌봄 센터에 대한 차별과 낙인	59%	56%	3%
송정중 폐교	22%	12%	10%
어린이집 신설	48%	46%	2%
급식비 차등 지원	38%	21%	16%
학원 일요 휴무	48%	36%	12%
강서구 특수학교 신설	66%	49%	15%

설문 조사에서 조사 항목으로 선정한 양육 관련 갈등 사례 중 양육자 집단에서 인지도가 높았던 갈등은 강서구 특수학교 신설, 임산부 전용 주차 공간 문제, 돌봄 센터에 대한 차별과 낙인 순이었다. 비양육자 집단에서 인지도가 높았던 갈등은 임산부 전용 주차 공간 문제, 돌봄 센터에 대한 차별과 낙인, 강서구 특수학교 신설 순이었다. 조사 항목으로 선정된 갈등 중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의 인지도 차이가 가장 극명히 드러났던 갈등은 급식비 차등 지원, 강서구 특수학교 신설, 학원 일요 휴무와 관련된 갈등이었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갈등 사안에 대하여 양육자와 비양육자에게 해당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 매우 심각, 심각,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 의 4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여 도출된 결과는 다음(표 2-2)과 같다.

[표 2-2] 서울시의 양육 관련 갈등 사례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

양육 관련 갈등	양육자	비양육자	차이
임산부 전용 주차 공간	16%	13%	3%
돌봄 센터에 대한 차별과 낙인	36%	26%	10%
송정중 폐교	15%	7%	8%
어린이집 신설	15%	21%	6%
급식비 차등 지원	51%	27%	24%
학원 일요 휴무	7%	18%	11%
강서구 특수학교 신설	54%	32%	22%

본 설문 조사에서 조사 항목으로 선정한 양육 관련 갈등 사례 중 양육자 집단에서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갈등은 강서구 특수학교 학교 신설, 급식비 차등 지원, 돌봄센터에 대한 차별과 낙인 갈등이었다. 즉, 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심각하다고 평가한 갈등 항목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조사 항목 가운데 급식비 차등 지원, 특수학교 신설과 관련한 갈등 문제의 경우 “매우 심각하다”고 평가한 응답률의 차이가 두 그룹 사이에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예컨대 어린이집 급식비 차등 지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인원은 양육자 집단 중 절반을 넘는 51%였던 반면, 비양육자의 경우에는 27%만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즉, 갈등을 인식한 사안의 심각성별로 나열한 결과 자체는 양육자와 비양육자 집단에서 유사한 양상이었으나 갈등을 매우 심각하다고 평가한 응답자의 비율이 양육자 집단에서 현저히 높아, 체감하는 갈등의 심각성에 있어서는 양육자와 비양육자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설문에서는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항목과 더불어 제시된 갈등 사안 중 본인이 당사자인 갈등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양육자 중 37%, 비양육자 중 27%가 일부 양육 관련 갈등의 당사자라고 보고하였다. 이는 비양육자 또한 양육 관련 갈등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예컨대, 특수학교 신설 시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자신의 동네가 특수학교 부지로 선정되는 경우 등), 양육 관련 갈등은 실제 개인의 양육 여부를 막론하고 시민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_서울시는 갈등 관리를 잘 하고 있는가?: 양육 갈등 관리에 대한 시민 인식

본 설문에서는 서울 시민들이 서울시의 갈등 관리에 대해 만족하는지, 양육 관련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떤 주체가 어떤 방식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역시 양육자 및 비양육자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응답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은 알파 값 0.05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즉, t-검정 결과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 집단의 응답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집단 간 차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t-검정 결과 p 값이 0.10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집단의 응답 간 차이가 통계적 경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1) 서울시가 수행하는 민주적 갈등 관리에 대한 평가: 양육자, 비양육자에 비해 서울시의 갈등 관리에 대해 부정 평가

본 설문에서는 시민들에게 서울시가 양육 갈등 해결을 위한 민주적 갈등 관리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가를 5점 척도(1 = 아주 잘 됨, 5 = 전혀 안 됨)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및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응답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표 2-3과 같다.

[표 2-3] 서울시가 수행하는 민주적 갈등 관리에 대한 평가

문항	응답분류	양육자	비양육자	통계결과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	1 = 아주 잘 함 5 = 전혀 못 함	3.54	3.50	무의미
비당사자 시민 간 대화와 타협		3.49	3.42	무의미
서울시의 공공 갈등 관리		3.51	3.26	유의미 ($p < 0.05$)
구청의 공공 갈등 관리		3.46	3.26	경계 ($p = 0.08$)

본 설문에서 서울시가 수행하는 민주적 갈등 관리를 세부 요목별로 평가하게 한 결과, 양육자들이 비양육자에 비해 서울시가 민주적인 갈등 관리를 잘하지 못한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의 공공 갈등 관리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양육자의 평가

값은 비양육자의 평가 값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낮았으며, 구청의 공공 관리 문항에 대해서도 역시 양육자의 평가가 비양육자의 평가에 비해 낮았다. 다만 구청의 공공 갈등 관리 문항에 대해 양육자와 비양육자 집단이 보인 응답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대신, 통계적으로 경계선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서울 시민들 가운데 양육자인 그룹은 비양육자인 그룹에 비해 서울시와 구청이 공공 갈등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 비당사자인 시민 간의 대화와 타협에 대한 평가는 양육자와 비양육자 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공공 기관이 단독으로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갈등 관리에 대한 평가는 양육 여부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시민들이 평가한 양육 관련 갈등의 주요 원인

또한 본 설문에서는 시민들에게 양육 관련 갈등이 발생하는 최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시민들이 선택한 갈등을 발생시키는 주요한 원인 중 1순위라고 응답한 내용은 표 2-4와 같다.

[표 2-4] 시민들이 평가한 양육 관련 갈등의 주요(1순위) 원인

양육 관련 갈등	양육자	비양육자	차이
경제적 이익관계 충돌	25%	25%	0%
양육자와 비양육자간의 가치, 인식, 신념 차이	18%	17%	1%
양육자와 정책실행자 간 의견 교류, 토론 등 소통 문화 부족	11%	8%	3%
정부의 일방적인 양육 정책 및 사업 추진	11%	12%	1%
양육 당사자와 비양육자 간 상호 불신에 따른 감정적 대립	9%	7%	2%
양육과 관련된 공공 갈등 관련 법, 제도, 절차 미비	9%	14%	5%
양육당사자의 의사 결정 참여 기회 부족	7%	2%	5%
환경, 안전, 건강, 경제 등 양육 외 문제에 대한 시민의 요구 증대	5%	5%	0%
양육 정책에 대한 공개된 정보의 부족	3%	4%	-1%
양육 당사자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신뢰 부족	2%	6%	-4%

표 2-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양육자와 비양육자는 모두 경제적 이익 관계의 충돌을 양육 관련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의 가치, 인식, 신념 차이가 뒤를 이었다. 양육자의 경우에는 양육자와 정책 실행자(주로 공무원) 사이의 소통 부족과 정부의 일방적 양육 정책과 사업 추진을, 비양육자의 경우에는 양육과 관련된 공공 갈등 관련법, 제도, 절차의 미비, 정부의 일방적인 양육 정책과 사업 추진을 갈등 발생의 주원인으로 택하였다.

양육자의 응답과 비양육자의 응답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지점은 양육 관련 갈등에 대한 법, 제도, 절차 미비(비양육자가 주요 원인으로 5% 더 빈번하게 선택함) 및 양육 당사자의 의사 결정 참여 기회 부족(양육자가 주요 원인으로 5% 더 빈번하게 선택함)이었다. 이와 같은 양상은 비양육자가 양육 관련 갈등을 관리하고 해소하는 법과 제도의 필요성을 중요시한 반면, 양육자는 의사 결정 자체에 참여할 기회를 더욱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시민들이 평가한 갈등 관리 미비의 주요 원인

이와 관련하여, 양육 관련 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 어떤 원인에 기인한 문제일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양육자와 비양육자 공히 가장 많이 선택한 선택지는 공무원의 인식 부족으로, 양육자 중 30%에 해당하는 30인 비양육자 중 26%에 해당하는 22인이 공무원의 인식 부족을 갈등 관리가 잘 되지 못하는 제1순위 이유로 지목하였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시민들이 선택한 미비의 원인은 “갈등 관련 이슈가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져서”로, 양육자 중 18%(21인), 비양육자 중 20%(17인)가 갈등 자체의 복잡성을 갈등 관리가 미비한 제1순위 원인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시민들은 공무원들의 갈등 관리에 대하여 상당히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시에 이 결과는 안타깝게도 시에서 갈등 관리를 위해 투입하는 노력과 인적 자원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가 낮음을 시사한다. 시민들이 갈등 자체의 복잡성 또한 갈등 관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택하고 있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갈등 자체의 복잡성에 시정과 시민이 공감하는 갈등 관리가 이루어질 때, 시민들과 정책 실행 전문인인 공무원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선택한 갈등 관리 미비의 1순위 원인을 요약한 결과는 표 2-5와 같다.

[표 2-5] 시민들이 평가한 갈등 관리 미비의 주요(1순위) 원인

양육 관련 갈등	양육자	비양육자	차이
공무원의 인식 부족	30%	26%	4%
갈등 관련 이슈가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져서	18%	20%	-2%
이해 당사자 간의 비협조적 태도	13%	10%	3%
갈등 관리 담당인력의 부족	11%	12%	-1%
갈등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11%	8%	3%
기관장의 관심 부족	10%	12%	-2%
갈등 해결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7%	11%	-4%
기타의견: 공무원이 일하기를 거라낌 없이 꺼리는 태도	1%	0%	1%
기타의견: 전문성 결여	0%	1%	-1%

4) 세부적인 갈등 관리 방안별 필요성: 양육자가 비양육자보다 갈등 관리 필요성 절감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갈등 관리 방안을 대상으로 어떠한 갈등 관리 방안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질문하였다. 필요성은 5점 척도상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표 2-6)과 같다.

[표 2-6] 세부적인 갈등 관리 방안별 필요성

갈등 관리 방안	응답분류	양육자	비양육자	통계결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소통 문화 정착	1 = 매우 필요 5 = 전혀 필요 없음	1.92	2.31	유의미 ($p < 0.05$)
서울시, 구 등 지자체에 대한 신뢰 회복		1.87	2.31	유의미 ($p < 0.05$)
양육 정책의 적극적 홍보		1.84	2.15	유의미 ($p < 0.05$)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양육 당사자의 참여 절차 보장		1.81	2.10	유의미 ($p < 0.05$)
관련 갈등에 대처하는 공무원의 역량 강화		1.71	2.17	유의미 ($p < 0.05$)
양육 관련 갈등 전문 인력 양성		1.75	2.10	유의미 ($p < 0.05$)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		1.66	2.01	유의미 ($p < 0.05$)

본 설문에서 제시한 세부적 갈등 관리 방안을 대상으로 그 필요성을 시민들로 하여금 평가하게 한 결과, 양육자는 비양육자보다 모든 세부 갈등 관리 방안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의 원인에 대한 평가, 서울시의 현재 갈등 관리에 대한 평가에서는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응답한 바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세부적으로 갈등 관리

에 필요한 갈등 관리 방안의 필요성을 평가한 데에 있어서는 양육자들이 비양육자보다 현저히, 그리고 고르게 그 필요성을 절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갈등 관리 방안 중 양육자가 체감한 필요성이 강한 순서대로(위 표에 나타난 평균값 수치가 낮은 순서) 갈등 관리 방안을 나열하면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 공무원의 역량 강화, 양육 관련 갈등 전문 인력 양성 순서대로 체감 필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양육자 역시 사회적 풍토 조성, 공무원 역량 강화, 양육 관련 갈등 전문 인력 양성을 가장 필요한 방안으로 선택하였다. 두 집단 모두에서 사회적 풍토 조성이 가장 중요한 갈등 관리 방안으로 선택된 것은 고무적인데, 즉 시민들이 현존하는 인력의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하여 전문가에게 의존하여 갈등을 발생 후 시점에 해결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풍토 조성 및 인식 개선을 통해 갈등의 기저 원인을 해소하고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해소법을 선호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시민들이 선택한 갈등 관리와 해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상

시민들에게 갈등 관리와 해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양육자와 비양육자는 공히 이해 당사자들의 모임이 갈등 관리와 해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인 시민들의 응답을 표로 요약한 결과는 표 2-7과 같다.

[표 2-7] 시민들이 선택한 갈등 관리와 해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상

양육 관련 갈등	양육자	비양육자	차이
이해 당사자들의 모임	31%	25%	6%
서울시청 또는 각 구청	20%	24%	-4%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18%	23%	-5%
시민 개개인	16%	17%	-1%
서울시장	6%	7%	-1%
시민단체	6%	5%	1%
담당 공무원	1%	0%	1%
문재인 대통령	1%	0%	1%
언론	1%	0%	1%
필요-적절한 정책, 전문인력, 문화	1%	0%	1%

양육자와 비양육자는 공통적으로 이해 당사자들의 모임에 뒤이어, 서울시청 또는 구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이 갈등 관리와 해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시민을 대표하는 공무원들보다 이해 당사자들의 모임을 갈등 관리와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상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선택한 것은, 앞서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갈등 방안으로 사회적 풍조와 인식 개선을 꼽은 것과 일맥상통한다. 즉, 시민들은 시민 스스로, 이해 당사자들의 모임에서 의견을 나누고 상호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을 해소하거나 미연에 방지하는 갈등 관리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양육자 집단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모임의 중요도를 공공 기관 및 공무원이 갈등 관리와 해소에 있어서의 중요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는 점이다. 반면, 비양육자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공공 기관과 시민 대표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인 중요도 평가에 있어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미미하여, 양육 여부를 막론하고 서울 시민은 갈등 관리와 해소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중요시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4_삶의 질, 사회에 대한 신뢰, 그리고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민 인식

1)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 조사: 양육 여부에 따른 차이 거의 없음

참여자들이 실시한 설문문의 가장 앞부분 8개 문항에서는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와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사회에 대한 신뢰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인지, 사회 성원들은 서로를 이용하려 할 것인가 여부, 사회 성원들은 대개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실업자에게 정부가 적정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하는지, 정부가 주는 빈곤층 혜택을 줄여야 하는지, 대한민국 사회는 현재 어느 정도 통합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해당 문항군에 대한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응답을 조사한 결과는 표 2-8과 같다. 표 2-8에는 각 문항 및 응답, 응답 값, 양상, t-검정을 통한 계량적 분석 결과를 요약하였다. t-검정의 p 값이 0.05 이하인 경우만 통계적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였다. t-검정의 p 값이 0.10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통계적 차이가 경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별개로 서술하였다.

[표 2-8]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 조사

문항	응답분류	양육자	비양육자	양상	통계결과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 = 매우 불만 5 = 매우 만족	3.35	3.25	양육자가 삶에 더 만족	무의미
사회에 대한 신뢰도	1 = 매우 불신 5 = 매우 신뢰	2.84	2.95	비양육자가 사회를 더 신뢰	무의미
극소수의 사람만 신뢰 가능	1 = 매우 동의 5 = 매우 반대	2.52	2.56	비양육자의 사회 성원 신뢰도 높음	무의미
유의하지 않으면 사회 성원은 서로 이용	1 = 매우 동의 5 = 매우 반대	2.61	2.62	비양육자의 사회 성원에 대한 우려 적음	무의미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임	1 = 매우 동의 5 = 매우 반대	2.32	2.51	양육자가 사회 성원들을 좀 더 이기적으로 인식	무의미
정부가 실업자에게 적정 수준의 삶 제공 필요	1 = 매우 동의 5 = 매우 반대	2.70	2.63	양육자가 실업자 지원에 좀 더 반대	무의미
정부가 주는 빈곤층 혜택 감축 필요	1 = 매우 동의 5 = 매우 반대	3.57	3.44	양육자가 빈곤층 혜택 감축에 더욱 반대	무의미
대한민국의 사회 통합 여부	1 = 통합 안됨 5 = 통합 잘됨	2.23	2.20	양육자가 사회 통합이 더 잘 된다고 평가	무의미

해당 8개 문항에 대한 응답 양상을 살펴볼 때, 양육자들은 스스로의 삶의 질을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사회와 사회 성원에 대한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았고, 주의하지 않으면 동료 사회 성원에게 이용당할 우려를 비양육자보다 더 많이 갖고 있었다.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에 대한 의견은 그 대상에 따라 양상이 달랐는데, 실업자에게 삶의 질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대하여는 양육자들이 비양육자보다 필요성을 낮게 평가한 반면, 빈곤층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는 양육자들이 평가한 필요성의 정도가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사회 통합 여부에 대해서는 양육자들이 비양육자보다 사회 통합이 더 잘 되어 있다고 평가하였다. 일련의 양상은 나타났으나, 통계적 검증 결과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응답 사이에는 유의수준 알파 값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곧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 정도가 크게 유사함을 의미한다.

2) 사회 갈등에 대한 인식

본 설문 9번에서 14번 문항에서는 사회 갈등에 대한 인식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우선, 사회 갈등에 대한 인식에 관해서는 사회 갈등이 불가피한지, 갈등이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갈등은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지, 사회 갈등은 당사자가 해결해야 하는지, 제삼자의 중재가 필요한지, 사회 갈등에 정부의 적극 개입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해당 문항들에 대한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응답을 조사한 결과는 표 2-9와 같다.

[표 2-9] 사회 갈등에 대한 인식

문항	응답분류	양육자	비양육자	통계결과
사회 갈등은 불가피함	1 = 강하게 비동의 5 = 강하게 동의	3.76	3.62	무의미
사회 갈등은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됨		3.34	3.35	무의미
사회 갈등은 사회적 낭비 초래		3.21	3.12	무의미
사회 갈등은 당사자가 해결해야 함		2.88	2.82	무의미
사회 갈등 중재에는 제삼자 개입 필요		3.64	3.64	무의미
사회 갈등 발생 시 정부의 적극 개입 필요		3.50	3.30	무의미

표 2-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사회 갈등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갖고 있는 사회 갈등에 대한 인식 사이의 차이는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두 그룹 간 의견이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나, 양육자들은 비양육자보다 사회 갈등은 불가피하고,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며, 사회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좀 더 강하게 동의하는 경향이 있었다.

3) 사회 현황에 대한 평가: 양육자, 비양육자에 비해 사회에서 차별과 소외 강하게 느껴

설문의 15번에서 20번 문항에서는 설문 참여자들로 하여금 사회 현황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다섯 가지의 대비되는 항목에 해당하는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각 응답지는 차별과 소외 대 배려와 포용, 불신 대 신뢰, 무기력 대 활기, 불안 대 희망, 무배려 대 경청과 이해를 위한 노력이었다. 해당 5개 문항에 대한 설문 참여자들의 응답 결과는 표 2-10과 같다.

[표 2-10] 사회 현황에 대한 평가

1점	5점	양육자	비양육자	통계결과
차별과 소외	배려와 포용	2.41	2.73	유의미 ($p < 0.05$)
불신	신뢰	2.64	2.71	무의미
무기력	활기	2.77	2.75	무의미
불안	희망	2.29	2.39	무의미
배려가 없음	경청과 이해 노력	2.40	2.57	무의미

양육자들은 비양육자에 비하여 현재 사회에 차별과 소외가 만연하고, 불신 풍조가 있으며, 불안하고, 배려가 부족하다는 부정적 평가를 한 경향이 있었다. 반면, 사회가 무기력한가 활기찬가에 대해서는 비양육자가 양육자보다 무기력하다는 응답을 한 편이었다. 이들 5개 문항 중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지점은 차별과 소외-배려와 포용 항목으로, 양육자들이 비양육자보다 사회의 차별과 소외를 더욱 강하게 실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4) 사회 갈등 심각성에 대한 평가

본 설문문의 20번에서 28번 문항에서는 사회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조사하였다. 20번 문항에서는 전반적으로 사회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21번부터 28번까지의 8개 문항에서는 8가지의 갈등 사례에 대한 심각성을 5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전반적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응답 결과는 표 2-11과 같다.

[표 2-11] 사회 갈등 심각성에 대한 평가

응답	양육자 응답자수	비양육자 응답자수
갈등이 매우 심하다	19 (16%)	20 (24%)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87 (73%)	55 (65%)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12 (10%)	9 (11%)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0	0
모르겠다	1 (1%)	0
총 응답자수	119	84

약 90%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사회 갈등이 매우 심각하거나, 대체로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명도 없었다.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응답을 비교하였을 때 유사한 양상이 발견되었다. 두 그룹 공히 가장 빈번하게 선택한 응답지는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갈등이 매우 심하다”는 응답지를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다만, 비양육자의 경우 갈등이 매우 심하다고 응답한 인원이 전체 비양육자의 24%로, 양육자의 16%가 갈등이 매우 심하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할 때 비양육자가 갈등을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5) 다양한 사회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21번에서 28번까지의 8개 문항에서는 각각, 성별, 세대, 지역, 지자체, 시와 시민, 구청 및 동 주민센터와 시민, 갈등 당사자 간, 갈등 당사자와 비당사자 간의 갈등의 심각성을 어떻게 체감하는지에 대하여 5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설문 참여자들의 응답 결과는 표 2-12와 같다.

[표 2-12] 다양한 사회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문항	응답분류	양육자	비양육자	통계결과
성별 간의 갈등	1 = 매우 심하다 5 = 전혀 심하지 않다	2.29	2.39	무의미
세대 간의 갈등		2.18	2.26	무의미
지역 간의 갈등		2.24	2.49	경계 ($p = 0.09$)
지자체 간의 갈등		2.88	2.82	무의미
서울시와 시민 간의 갈등		2.91	3.01	무의미
구청 / 동 주민센터와 시민 간의 갈등		3.03	3.27	경계 ($p = 0.07$)
갈등 당사자 간의 갈등		2.73	2.63	무의미
갈등 당사자와 비당사자 간의 갈등		2.87	2.96	무의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자들이 갈등의 심각성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평균값이 2~3 점 사이였던 것을 고려하면 응답자들은 상기 갈등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양육자가 세대, 지역, 성별 순으로 갈등이 심각하다고 평가한 반면, 비양육자는 세대, 성별, 지역 순으로 갈등이 심각하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다른 각도에서 평가하면, 양육 여부와 상관없이 시민들은 세대, 지역, 성별 갈등이 심각하다고 평가하였다고 간주할 수 있다. 반대로 해당 항목 중 가장 심각도가 낮다고 평가받은 갈등은 양육자의 경우 구청-동 주민센터와 시민 간의 갈등, 서울시와 시민 간의 갈등, 지자체 간의 갈등이었고 비양육자의 경우 구청-동 주민센터와 시민 간의 갈등, 서울시와 시민 간의 갈등, 갈등 당사자와 비당사자 간의 갈등이었다. 이와 같은 양상은 다행히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공공 기관과 시민 간의 갈등이 다른 갈등과 비교할 때 극심하지 않음을 뜻한다.

양육자 집단에 특정적으로 심각하다고 평가되는 갈등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평가한 각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응답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항목은 없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양육자의 응답 값 평균이 비양육자 응답 값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 양육자가 비양육자에 비해 사회 갈등의 심각성을 더욱 심각하다고 평가한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상에는 당사자 간의 갈등 단 한 항목만 예외로, 비양육자가 더욱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더불어 주목할 점은 설문에서 제시한 8개 항목의 갈등 중 두 가지의 갈등에 있어 양육자

와 비양육자 간에 통계적으로 경계선상에 있는 차이가 관찰되었다는 것이다. 지역 간 갈등의 경우, 양육자가 비양육자보다 심각하다고 인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구청-동 주민센터와 시민 간의 갈등의 경우 역시 양육자가 비양육자가 심각하다고 인지하였다. 이는 지역에 따라 양육자들이 지닌 고민이 다르거나, 그 심각도가 다를 수 있음, 그리고 구청과 동 주민센터 등 생활과 더욱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행정 기관이 비양육자보다는 양육자들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양육자들의 필요에 대해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6) 갈등 유형별 추정 갈등 발생 빈도: 양육자, 비양육자에 비해 시설 반대 갈등이 빈번할 것으로 추정

설문의 33번부터 37번까지 문항에서는 응답자들로 하여금 갈등 유형을 제시하고, 서울시에서 해당 갈등이 얼마나 자주 일어날 것으로 추정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갈등 유형은 시설 반대 갈등(예컨대 특수학교 설립 위치 갈등, 아파트 어린이집 신설 관련, 쓰레기 처리장 관련), 시설 찬성 갈등(송정중 폐교 반대, 고속도로 진입로 위치 선정 관련 갈등 등), 도시 정비 관련 갈등(노점상 등 거리 정비, 노후 도시 재생과 재개발, 마을 공동체 사업 관련 갈등 등), 보편적 이익 갈등(큰 인구집단에 대상 이해관계 관련 갈등인 공무원 직장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급식비 차등 관련 갈등,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 관련 갈등, 등록금 관련 갈등 등), 보편적 가치 갈등(시민 전체 내지 큰 인구집단에 미치는 사업의 가치를 둘러싼 갈등, 임산부 배려석, 학원 휴무제, 돌봄센터 관련 갈등 등)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각 갈등에 대해 시민들이 추정한 갈등의 발생 빈도는 표 2-13과 같다.

[표 2-13] 갈등 유형별 추정 갈등 발생 빈도

문항	응답분류	양육자	비양육자	통계결과
시설 반대 갈등	1 = 매우 자주 발생 5 = 전혀 발생 않음	1.86	2.07	유의미 ($p < 0.05$)
시설 찬성 갈등		1.97	2.12	무의미
도시 정비 관련 갈등		1.97	1.98	무의미
보편적 이익 갈등		1.99	1.98	무의미
보편적 가치 갈등		2.03	2.19	무의미

갈등의 심각도와 관련된 평가와 동일하게, 양육자들이 추정한 갈등 발생 빈도는 비양육자가 추정한 발생 빈도보다 높은 편이었다. 요컨대 양육자들은 다양한 갈등이 더 심각하며,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었다. 양육자들이 시설 반대 갈등이 가장 자주 일어날 것으로 추정한 반면, 비양육자들은 도시 정비 관련 갈등 및 보편적 이익 갈등이 더욱 빈번할 것이라고 추정한 것으로 보아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추측한 갈등의 빈도는 갈등 유형별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된다.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 다섯 종류의 갈등 중 네 종류의 갈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전반적으로 양육자와 비양육자들이 추정한 갈등 유형별 갈등의 빈도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양육자들은 비양육자보다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두고 시설 반대 갈등이 자주 일어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소위 유해 시설 신설에 대해 양육자들이 더욱 민감하며, 어린이집 등 양육자들은 신설을 찬성하나 주민들의 신설 반대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의 당사자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요약하자면 서울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과 사회 현황, 사회 갈등의 심각성은 전반적으로 양육 여부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육자들은 비양육자에 비하여 현재 사회에서 차별과 소외가 만연하다는 의견에 더욱 강하게 동의하였다. 그리고 양육자들은 지역 간의 갈등, 구청 및 동 주민센터와 시민 간의 갈등의 심각성을 비양육자들에 비하여 더 심각하다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육자들은 비양육자보다 시설 반대 갈등이 더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아동 양육 여부가 전반적 삶의 질 및 갈등에 대한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양육자들은 비양육자보다 더욱 차별과 소외에 노출되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양육자들은 비양육자들보다 지역 간 및 지역 주민의 행정 담당 부서와의 갈등이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양육 과정에서 양육자들이 지역 간의 격차 및 소규모 행정 담당 부서와의 소통 및 갈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기인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특히 갈등 발생 빈도를 추정하는 데에 있어 시설 반대 갈등의 추정 빈도를 양육자들이 비양육자에 비해 높이 잡은 것은 유해 시설이 양육 중인 유아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및 어린이집, 특수학교 등 일부 교육 시설이 지역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인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5_양육 갈등 해소는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마지막으로 양육 관련 갈등이 원만히 해소되었을 때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1) 양육 갈등 해소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전망: 양육자, 비양육자에 비해 양육 갈등 해소의 긍정적 영향이 크다고 전망

양육 갈등 해소가 양육 가정의 경제 활동 및 출생률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1점이 매우 도움이 됨, 5점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도록 한 결과는 표 2-1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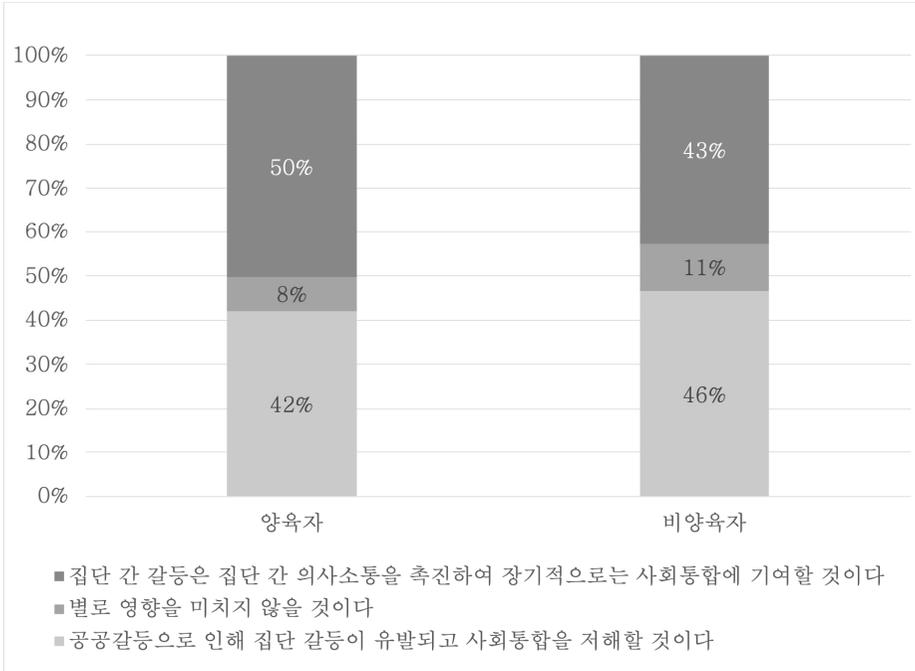
[표 2-14] 양육 갈등 해소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전망

문항	응답분류	양육자	비양육자	통계결과
가정 경제 활동에 도움	1 = 매우 도움이 됨	2.18	2.57	유의미 ($p < 0.05$)
출생률 증가에 도움	5 = 전혀 도움이 안 됨	2.10	2.45	유의미 ($p < 0.05$)

표 2-1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양육자들은 비양육자에 비하여 양육 갈등이 해소되어 적절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가정 경제 활동(예컨대, 여성의 경제 활동 증가) 및 출생률 증가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2) 공공갈등이 사회 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망

이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양육 갈등을 포함한 사회 갈등이 사회 통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사회 갈등이 의사소통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에 기여할지, 공공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 통합을 저해할지, 사회 통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지 중 한 가지 선택지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시민들이 해당 질문에 응답한 결과는 그림 2-5와 같다.



[그림 2-5] 공공갈등이 사회 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망

그림 2-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양육자는 비양육자에 비하여 사회 갈등이 사회 통합에 미칠 영향을 좀 더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자의 과반인 50%가 사회 갈등은 의사소통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반면, 비양육자가 갈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한 비율은 그보다 7% 낮은 43%였다. 가장 다수의 비양육자가 선택한 선택지는 공공갈등으로 인해 집단 갈등이 유발되고 사회 통합이 저해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3) 양육 갈등의 현황 평가 그리고 미래 전망

마지막으로 설문 조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양육 갈등의 범위, 강도, 빈도에 대해 통시적으로 현황을 평가하고 전망하도록 하였다. 우선, 양육 갈등의 현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재의 양육 갈등이 보이는 범위, 강도, 및 발생 빈도를 5년 전의 양육 갈등과 비교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2-15와 같다.

[표 2-15] 양육 갈등의 현황 평가: 5년 전과 비교하여

문항	응답분류	양육자	비양육자	통계결과
갈등의 범위	1 = 과거에 비해 축소, 약화, 감소 5 = 과거에 비해 확대, 강화, 증가	3.63	3.50	무의미
갈등의 강도		3.58	3.54	무의미
갈등의 빈도		3.58	3.44	무의미

표 2-1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서울 시민들은 평균적으로 현재 서울시에서의 양육 갈등 범위가 과거의 갈등이 지녔던 범위보다 확대되었고, 강도 또한 강해졌으며, 빈도도 증가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위와 같은 양상은 양육 여부와 무관하게 나타나, 서울 시민들이 평가한 양육 갈등의 전반적 심각성은 시민 개개인의 양육 여부와 무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민들이 양육 갈등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 대비 5년 후의 양육 갈등의 범위, 강도, 및 발생 빈도에 대해 동일한 척도로 평가하도록 한 결과는 표 2-16과 같다.

[표 2-16] 양육 갈등의 미래 전망: 현재 대비 5년 후 전망

문항	응답분류	양육자	비양육자	통계결과
갈등의 범위	1 = 현재에 비해 축소, 약화, 감소 5 = 현재에 비해 확대, 강화, 증가	3.45	3.55	무의미
갈등의 강도		3.46	3.39	무의미
갈등의 빈도		3.50	3.36	무의미

표 2-1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서울 시민들은 평균적으로 미래의 양육 갈등이 현재보다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이 양상은 갈등의 범위, 강도, 빈도에 있어 동일하게 나타났다. 양육자의 응답과 비양육자의 응답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서울 시민들은 양육 여부와 무관하게, 양육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즉 미래 서울 시정에 있어 양육 관련 갈등의 관리와 해소가 꾸준히 중요한 사안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6_설문 결과 요약

이상과 같이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양육 갈등에 대한 대규모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 보았다. 본 절에서는 설문 결과 중 양육자에게 특정적으로 나타났다고 간주할 수 있는 양상에 대해 요약하여, 서울시의 양육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양육자들은 시정에 대해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양육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 갈등 체감도가 높은 서울 시민

우선, 설문 조사 대상인 양육 관련 갈등 사례 중 양육자 및 비양육자 집단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았던 갈등은 강서구 특수학교 신설, 임신부 전용 공간 문제, 돌봄 센터에 대한 차별과 낙인 순이었다. 이는 양육 관련 사안의 인지도가 양육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설문 조사 대상이었던 실제 갈등 사례 중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의 인지도 차이가 가장 극명히 드러났던 갈등은 급식비 차등 지원, 강서구 특수학교 신설, 학원 일요 휴무와 관련된 갈등이었다.

2) 갈등 사안과 심각성에 따라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 인식 차이 존재

각 사안에 대하여 응답한 인지도 및 심각성에 대한 사안별 순위에는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급식비 차등 지원, 특수학교 신설 문제의 경우 “매우 심각”하다고 평가한 응답률의 차이는 두 집단 사이에서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급식비 차등 지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인원은 양육자 집단 중 절반을 넘는 51%였던 반면, 비양육자의 경우에는 27%만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즉, 갈등을 인식한 사안을 인지도별, 심각성별로 나열한 결과 자체는 양육자와 비양육자 집단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인 반면, 일부 갈등 사안에 있어서는 해당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평가한 응답자의 비율이 양육자 집단에서 현저히 높았다. 즉, 각 사안에 대해 체감하는 심각성에 있어서 양육자와 비양육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3) 양육 여부에 따라 시민의 갈등 관리 평가에 차이 존재

서울시의 갈등 관리에 대한 평가 역시 양육자와 비양육자 집단 사이의 차이를 보였다. 가장 극명했던 차이는 비양육자들보다 양육자들이 서울시와 구청이 공공 갈등을 잘 관

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간주한 것이다. 반면, 그 외의 갈등 관리(예를 들어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 비당사자인 시민 간의 대화와 타협 등)에 대한 평가는 양육자와 비양육자 집단 사이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공공 기관이 유일한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갈등 관리에 대한 평가에 있어, 양육자 집단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4) 양육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한 당사자 참여의 중요성 강조

양육자들이 꼽은 양육 갈등의 원인 또한 비양육자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였다. 특히 양육자의 응답과 비양육자의 응답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지점은 양육자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 결정 참여 기회가 부족하여 양육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것이다. 반면, 비양육자는 양육 관련 갈등을 관리하고 해소하는 법과 제도의 필요성을 중요시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양육자들이 직접 의사 결정에 참여하여 양육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희망함을 시사한다.

양육자와 비양육자는 공히 갈등 관리가 미비한 이유로 공무원의 인식 부족을 꼽았으나, 동시에 갈등 관련 이슈의 다양성과 복잡함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시에서 기울이는 노력이 시민의 생활에 직접 닿고, 시민과 시 공무원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갈등 관련 이슈의 다양성과 복잡함에 호소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세부적인 갈등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그 필요성을 평가하도록 한 경우, 양육자는 세부 갈등 관리 방안들이 모두 절실히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양육자인가의 여부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갈등 관리와 해소 과정에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양육 관련 사안에 대한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보인 위와 같은 다양한 차이점들이 있었던 반면, 전반적인 삶의 질, 사회 현황에 대한 평가에서는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높은 유사점을 보였다. 다만, 양육자들은 비양육자에 비하여 현 사회에서 차별과 소외가 만연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양육과 관련된 사안의 결정 및 정책 집행에 앞서 양육자들이 소외되거나 차별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양육자들은 비양육자에 비하여 사회 갈등의 심각성을 더욱 심각하다고 평가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사회 갈등의 심각성 평가에 있어서는 갈등의 세부 사안에 따라 다양한 양상이 나타났다. 예컨대 지역 간의 갈등은 비양육자보다 양육자가 심각하다고 인지하였다. 구청 및 동 주민센터와 시민 간의 갈등 역시 양육자가 비양육자가 심각하다고

인지하였다. 이를 토대로 고려해 볼 때, 서울시에서는 각 지역별로 양육자들이 지닌 고민이 다를 가능성, 또는 지역별로 양육자들이 인식하는 고민의 심각성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구청과 동 주민센터 등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행정 기관이 비양육자보다는 양육자들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초 행정 기관들이 어떻게 양육자들의 필요에 대하여 귀 기울이고, 도움을 제공할지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 지역별 차별로 인한 갈등을 빚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평준화를 도모하여야 하는 동시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다양한 갈등 사안의 발생 빈도 추정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 양육자들은 비양육자보다 시설 반대 갈등이 자주 일어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양육자들이 어떤 시설의 신설에 민감한지, 어떠한 방식으로 당사자가 되는지(예컨대, 성장 중인 영아 및 유아의 건강에 좋지 않은 시설의 신설 반대 또는 인근 주민이 반대하는 어린이집 신설을 찬성하게 되는 경우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양육자들은 비양육자에 비하여 양육 갈등의 해소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였다. 양육자들이 양육 갈등이 해소되어 적절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가정 경제 활동(예컨대, 여성의 경제 활동 증가) 및 출생률 증가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문 응답자들은 양육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의 양육 갈등이 과거보다 심화되었으며, 미래의 양육 갈등은 현재보다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러한 응답 양상은 갈등의 범위, 강도, 빈도에 있어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양육 여부와는 무관하였다. 이는 양육 갈등이 현재의 서울 시정에서 중요한 사안이자, 미래의 서울 시정에 있어서도 주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는 시민들의 전망을 반영한다.

03. 심층 지면 인터뷰 결과

1_심층 인터뷰 참여자 정보 및 인터뷰 내용 개요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시민들의 양육자 여부, 연령대 및 성별은 표 3-1과 같다. 익명성 보장을 위하여 모든 참여자는 참여자 (가)부터 (카)로 지칭한다.

[표 3-1] 인터뷰 참여자 정보

참여자 식별코드	양육자 여부	연령대	성별	정책/시민활동 관심도
가	비양육자	40대	여	약간의 관심
나	양육자	40대	여	약간의 관심
다	양육자	20대	남	관심 많음
라	양육자	30대	여	약간의 관심
마	양육자	30대	남	공공기관 근무 경험
바	양육자	20대	여	약간의 관심
사	양육자	30대	여	약간의 관심
아	양육자	30대	남	약간의 관심
자	양육자	40대	여	적극 참여
차	양육자	30대	여	관심 많음
카	비양육자	50대	명시 안함	관심 많음

심층 인터뷰는 총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설문지에서 인지도 및 심각성 조사를 시행한 서울시의 구체적인 양육 관련 갈등 사례를 제시하여 사안에 대하여 환기하였다. 그 이후, 경험한 사례가 있다면 그 경험에 대하여, 경험한 사례가 없다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례에 대해 선택하여 그 내용을 서술하도록

록 요청하였다(문항 1). 만일 주어진 갈등 사례 외의 심각한 갈등 사례에 대해 서술하고 싶은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갈등 사례에 대해 서술하여도 좋다고 안내하였다. 그리고 해당 갈등에 대해 원인(문항 2), 서울시 또는 서울시교육청의 갈등 관리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였다. 갈등 관리 평가에 있어서는 잘한 점과 잘못된 점을 나누어 서술하도록 요청하였다(문항 3).

이에 뒤이어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이 어떻게 갈등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다(문항 4). 관련하여, 응답자 본인과 반대되는 입장과 상호 배려하고 상생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문항 5).

마지막으로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의 갈등이 심각한 원인 및 양육자-비양육자 간 갈등의 구체적 사례에 대해 질문하였다(문항 6). 또한 양육 관련 갈등의 해결이 가정 경제활동 증가 및 출생률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지 및 그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였다(문항 7).

2_양육 갈등, 당사자의 이야기

[표 3-2] 인터뷰 참여자들이 경험한 갈등 사례 및 갈등 원인

참여자 코드	경험한 갈등 사례	갈등 원인
가	임산부 전용 공간	주변의 배려 부족, 인식 부족
나	어린이집 급식비 지역 내 장애학교	어린이집 급식비 불평등 당사자는 아니나, 지역 이기주의가 심각하다고 생각함
다	지역 내 장애학교	장애학교가 인근 비장애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인식
라	코로나19로 인한 학원 강제 폐쇄	코로나19로 인한 학업 비정상화에 대한 보완책에 대한 인식 부족
마	임산부 전용 공간	일반인의 협조 부족
바	임산부 전용 공간	강제성 없을 경우 배려 부족
사	어린이집 급식비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부족, 규제 미비
아	어린이집 급식비	공정한 대우에 대한 인식 부족
자	학교에서의 미세먼지 관리	충분한 대책 대신 미봉책을 제시하는 교육부와 교육청
차	임산부 전용 공간	주차 공간 협소, 강제성 있는 조치 미비
카	없음	없음

가장 많은 참여자가 선택한 갈등 사례는 임산부 전용 공간 문제로, 11인 중 4인의 참여자들이 임산부 전용 공간과 관련한 본인의 경험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어린이집 급식비 불평등 관련 갈등에 대해서도 3인이 지적하였다. 기타 사안으로는 지역 내 장애학교(참여자 나, 다), 학교에서의 미세먼지 관리(자) 등이 언급되었다. 임산부 전용 공간 문제가 많은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많은 서울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배려석이 민원 증가율 1위(박용준, 2019)를 차지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많은 시민들의 생활과 닿아 있는 임산부 전용 공간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향후 서울시가 더욱 세심하고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함을 반영한다. 임산부 전용 공간에 뒤이어 가장 많은 인터뷰 참여자들에게 언급된 갈등은 어린이집 급식비와 관련된 불평등 문제였다. 이 역시 최근 어린이집 급식의 질과 급식비와 관련하여 다수의 보도에 따라 급증한 관심도가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맞닿아 있는 식생활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고에 대응함에 있어서 서울시가 보다 철저하고 빈틈없는 관리 시스템을 갖춰져야 함을 시사한다.

3_갈등의 원인: 인식 부족, 제도와 규제 미비, 양육 정책의 우선순위

1) 갈등의 기저 문제 1: 사회 성원의 인식 부족

본 설문 조사 결과 흥미로운 점은 다수의 시민이 다른 사회 성원들의 인식 부족을 양육 관련 갈등의 기저 문제로 간주하였다는 것이다. 예컨대, 임신부 전용 공간 관련 갈등을 경험한 참여자 (가)는 다음과 같이 본인의 경험에 대하여 서술한다.

(가) 최근에 지하철에 임신부를 위한 공간을 마련되어 있긴 하나 이걸 정작 임신부는 앉아 있는 것을 보지 못했고 대부분은 일반인들이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임신부에 대한 시각이 열려 있지 못하고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략] 물론 직장서 일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주의지만 임신부한테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고 눈치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참여자 (가)의 경우, 임신부에 대한 닫힌 시각과 배려 부족이 임신부 배려석 등의 구체적 조치가 잘 시행되지 않는 원인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가)의 지적과 흡사하게, 참여자 (바) 또한 임신부 전용 공간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임신부를 배려하는 데에 사용되지 못하는 것은 시민의 인식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참여자 (바)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바) 나, 또는 나와 관련된 사람이 아니면 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임신부 전용 공간은 편의를 위해 배려하는 것으로 강제성을 띠지 않기 때문.

(바)는 응답에서 자신 내지 관련된 사람이 아니면 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인식과 동시에 임신부 전용 공간이 강제성이 없다는 정책적인 측면이 동시에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인식 부족과 제도에서의 강제성이 없음은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있을까? 참여자 (바)는 임신부 전용 공간에 대해 “임산부들에 대한 사전 인식 개선 없이 임신부 전용 공간만을 개시, 홍보하여 오히려 반감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평가한다. 즉,

인식 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정책 시행과 방안 홍보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반감을 가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 관련 갈등에 대해 서술한 참여자 (자) 역시 다음과 같이 유사한 지적을 하였다.

(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근본적으로 관리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미세먼지 나쁘다고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가 생기는 원인을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미세먼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의 서술에서 흥미로운 점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노력에 대하여 확실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로, (자)는 지난 약 4년에 걸쳐 직접 서울시, 서울시교육청과 소통하며 공공 및 교육 기관에서의 미세 먼지 관리에 대한 민원 활동을 한 시민이다. (자)는 서울시의 노력에 대해 인지를 충분히 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 “근본적인” 갈등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후의 서술로 추정컨대, (자)의 입장에서 “근본적인” 갈등 관리란 미세먼지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 대처법을 알리는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강조하는”) 관리가 아니라, 미세먼지의 원인을 알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포함된 관리를 뜻한다. 이는 앞서 임산부 전용 공간 문제에 대해 논한 (바)의 입장인, 인식 개선 없는 정책은 충분하지 않다는 언급과 일맥상통한다.

서술의 대상이 된 사안은 서로 다르나, 시민들이 인식 개선과 정책 시행을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한다는 점은 장애학교 설립에 관해 논한 (나)의 발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나) 저는 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가 아니고, 지역 내 장애학교 설립으로 인한 갈등을 겪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뉴스를 통해 장애 학교 설립에 관한 이슈들을 접할 때면 지역 이기주의와 과연 나도 장애학교 설립에 관련된 주민이라면 저들처럼 반기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인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이상적인 생각일 뿐인 것인지... 라는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혐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인식 개선문제로 제도적부분과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나)는 장애학교 설립 문제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편견, 혐오라는 사회적 인식 개선 문제를 연결하고 있다. 그리고 해결책으로는 제도적 부분과 국민 인식 개선을 종합하는 해결책을 근본적이며, 이상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선호한다. 한편으로 시민들은 정책이 잘 시행되지 않는 원인을 시민 인식에서 찾고 있다(배려 부족으로 인한 임산부 배려석의 불충분한 운용).

2) 갈등의 기저 문제 2: 불명확한 제도와 규제. 시민은 시민 인식, 정책, 시행 방안이 일관된 정책 원해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시민들은 정책이 잘 실행되지 않는 원인을 주로 시민 인식에서 찾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제도나 규제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것 역시 당사자에 대한 배려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도 발견되었다. 아래 참여자 (사)의 응답을 살펴보자.

(사) 제대로 된 인식도 없고 관리가 불명확한 것은 갈등을 낳게 되고 누군가로부터 매우 불편한 시선을 만들지요.

(사)의 발언은 인식 부족과 관리 불명확이 전반적인 갈등의 원인이라는 일반화로 연결된다. 즉, 위에 인용한 서울 시민들의 필요를 만족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정책 홍보 이전에 시민의 인식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시민의 인식과 필요에 기인하여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될 예정임을 충분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자 (차)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차) 우선적으로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시행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중략...] 그리고 왜. 임산부에게 전용 주차 공간을 제공해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가 필요함.

참여자 (마) 또한 비슷한 지적을 한다. 충분한 공지, 전파와 독려를 통해 시민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정책 집행의 필요성에 대해 (마)가 언급한 바는 다음과 같다.

(마) 갈등 해소를 위해서 충분한 공지와 해당 장소들에 전파, 독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하자면, 시민들은 시민 인식, 정책, 시행 방안이 일관된 시정을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동시에 갈등 관리에 있어서는 명확한 방법과 태도를 취하여 갈등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시에서 갈등 관리 방법을 선택한 기저에 시민의 요구와 바람직한 시민 의식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적절한 홍보 방법 또한 필요할 것이다. 시민 인식과 정책 시행에 대한 선후 관계에 대해 (바)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바) 임신부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 차후 임신부 전용 시설 또한 재점검.

참여자 (바)는 인식 개선이 선행된 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현실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정책의 성공적 시행의 전제 조건으로 인식 개선을 들고 있는 것이다.

3) 갈등의 기저 문제 3: 양육 정책의 우선순위가 낮음

시민들은 시민 인식 부족, 정책 시행의 불분명성 외에도 양육 정책이 시정의 우선순위가 아닌 것에서 양육 갈등의 원인을 찾기도 하였다. 아래에 인용한 참여자 (나)의 응답을 살펴보자.

(나) 어린이는 투표권이 없다. 어린이를 위한 법안은 항상 뒤로 미루어지기 일쑤이고,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법안 통과는 어려웠던 것은 아닌지 한마디로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닌지...

즉, 시민들은 양육 관련 갈등의 원인으로 시민 인식 부족, 정책 시행의 불분명성, 그리고 시정에서 양육 정책이 낮은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서울 시민들이 바라는 서울시의 양육 갈등의 관리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4_서울 시민이 바라는 갈등 관리

1) 시민 의견 경청 필요: 다양한 창구의 필요성

심층 인터뷰에 응한 시민들 중 다수는 서울시가 시민의 바람과 필요에 대해 경청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음의 인용문을 살펴보자.

(가) 대중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다수의 의견을 취합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 분명한 국민의견 수렴과 대국민 홍보 뒤 재의견 취합을 먼저 하길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먼저 여러 설문 가부에 대한 조사 후 공청회도 학부모 위주로 각각 구별해야 하고 그 뒤 수치화해서 결론 내야 합니다.

(사)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여러 맘카페를 둘러보시며 학부모, 임신부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불편 사항들이 일부일 수 있으나 전체일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유념해주세요. 큰 갈등의 씨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가벼운 이야기로 돌려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밀히 들여다본다면 그 속에는 분명 오래된 갈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 (가)의 경우,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는 동시에 개개인의 의견을 소홀히 하지 않고 경청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라) 역시 확실한 창구를 통한 다수 국민의 의견 경청과 의견 수렴이 바람직한 갈등 관리라고 간주한다. 특히 의견을 수렴한 후 홍보를 통해 의견 취합을 다시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흥미롭다. (사)는 시민들이 의견 취합 과정에서 “큰 갈등의 씨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가벼운 이야기로 돌려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한다. 자칫 일상적이고 가벼운 이야기로 여겨질 수 있는 사례들의 기저를 면밀히 살펴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종합하자면, 시민들은 개개인의 의견을 소홀히 하지 않는 의견 취합, 확실한 창구를 통해 여러 차례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장의 마련, 그리고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보이는 문제들의 기저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필

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참여자들이 의견 취합 또는 대화와 소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잡음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아래에 옮긴다.

(가) *대화가 어렵다면 메시지나 편지 등의 수단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나의 입장을 표명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때때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열띤 논쟁보다 이런 방법이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참여자 (가)는 비대면 창구를 통한 의견 표명이 대면 소통보다 논쟁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을 한다. 아래에 옮긴 (나)의 발언의 경우, 일반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공정한 협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견 수렴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나) *민, 관 협치 주민 제안 사업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많은 부분들이 주민 스스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협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반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시스템의 보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많은 부분들이 정책이 되고 그 정책들로 인해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2) 민원 독려를 위한 방안들: 익명성 보장, 주기적 소통, 협력

이와 관련하여, 참여자 (사)는 민원인의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이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민원인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따를 수 있는 불이익 때문에 민원 자체를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 *자유롭게 자신의 불편함을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소속 및 이름, 지역 등이 밝혀지고, 그로 인해 뒤에 올 후 폭풍이 싫어서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기관에 민원을 넣었는데 그것들이 원장, 관리자들에게 알려지게 되는지 참 불편하고 이상한 일이지요... 먼저 민원이 많아지면 그만큼 담당자들의 역할이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그분들도 힘들겠지요. 다 살피기란 어려운 일이지요. 그렇다면 학부모,*

관계자들이 직접 문제시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반드시 그들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익명 아닌 익명이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익명이 더 이상 익명이 아닌 이상 학부모나 시민,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는 뜻이 되니까요~

아래 발언에서 참여자 (자)는 담당자들의 노력하는 모습, 민원에 대한 성실한 태도, 자세한 답변을 통해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 사이에 신뢰감이 쌓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자) “아직 모릅니다, 기다려주십시오”와 같은 두루뭉술한 대답 말고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과 저희 민원에 대한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으로 신뢰감이 쌓였으면 합니다.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의 주기적인 직접 소통을 요청한 의견도 있었다. 아래에 인용한 참여자 (자)의 응답을 살펴보자. (자)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시민활동을 한 경험자로, 직접 서울시 및 교육청과 소통한 경험이 있다.

(자) 교육청에서 미세먼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대처해주시고 미세먼지 활동을 하시는 일반시민들과 교육청담당자들의 정기적인 미팅으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의견 수렴을 하였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민원인들 대부분이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학교현장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선해 나가려면 비용이 들어야 하니 예산문제에 부딪치는 쪽은 교육청 담당자이실 테고, 건강권보다 학습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부모님들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자본주의사회이기에 자식 잘되라고 가르치는 것에 비중을 두시는 것 같습니다.

즉, (자)는 민원인과 공무원의 주기적, 규칙적 협력을 통한 문제점 개선을 갈등 관리의 바람직한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민원인이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 현장에 대한 관점을 공무원에게 전달하기를 원한다. 주기적 모임을 통해 공무원들이 예산 등의 비용 문제, 시정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 나아가 동료 학부모들 중 뜻을 함께하지 않는 이들의 이해관계와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다.

3) 장기간에 걸친 소통을 통한 신뢰 관계 형성

(카)는 주기적 소통을 넘어, 장기간에 걸친 공유, 공존과 상호 대면을 통한 이해 도모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카) 예전에 들은 이야기처럼 보수당을 지지하는 할아버지들이 진보정당에 투표를 하게 했던 것은 귀농한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정을 쌓아가는 것이었다고 들었는데,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시도해 보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의 방법일 수는 [... 하략]

다만 (카)의 경우 서울시에서의 적용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의견 수렴 이외의 갈등 관리에 대해서도 참여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대표적으로는 시의 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 활동을 계속하거나 수행해 줄 것(아래 (다)), 시범적 정책 시행 이후 재평가를 통한 정책 확정(아래 (라)), 특정 정책이 수행될 경우 반대 측 입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할 것(아래 (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구체적인 시민들의 응답은 아래에 옮긴다.

(다) (특수학교 설립 관련) 시에서는 홍보를 통해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다른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학교 학부모와 자녀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역할 바꾸기를 해보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봄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이해를 도와 경제활동에 도움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라) (학원 강제 휴무 관련) 꼭 휴무제를 하려면 격주로나 월 1회로 시행 후 상황을 보고 나서 전면 시행하든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 (특수학교 설립 관련) 반대 입장을 이해하고 상생하는 방법으로, 이전을 반대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혐오감을 느낄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공감을 해주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층 인터뷰 응답에서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갈등 관리에 대해 살펴해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전체 시민들이 지적한 바인, 표면적으로는 양육 관련 갈등으로 보이는 다양한 갈등의 기저 원인에 대한 논의에 대해 상술하고자 한다.

5_서울 시민이 원하는 양육 갈등 해소 방안

본 절에서는 서울 시민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양육 갈등이 해소되기를 바라는지에 대해 초점을 두어 시민들의 응답을 요약하였다.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명확한 정책 시행을 통한 배려의 일상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명확한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효율적, 정례적으로 취합되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시민들은 개인의 사례를 철저히 취합하여 향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사회의 기저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미리 파악하고 갈등을 미연에 방지해주시기를 희망하였다.

1) 사회적 약자에 대해 배려

다수의 시민들은 갈등의 기저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문제의 본질에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 언급한 (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제가 갈등의 기저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나) 제가 생각하는 갈등에 대한 문제점들은 대부분 어린이, 장애를 가진 사회적 약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 비하, 혐오의 가장 큰 원인은 가정, 학교, 직장 등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부터 논의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장애인이 사회에서 배제되다 보면 혐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단순히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을 넘어, 기저 문제인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지 않는 사회의식에 대해 논의하고 시민의식을 함양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임신부 전용 공간에 대해 언급한 (차)의 경우, 근본적 문제는 서울시에 주차공간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차)는 주차난 해소를 우선적 목표로 삼으며 한정적 공간 배분에 있어 교통 약자들을 우선 배려하는 정책을 정확히 홍보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차) 당장 내 차가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임신부를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공간을 공적으로 두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모든 차량이 주차 가능한 충분한 공간이 있다면 굳이 임신부 전용 공간을 이용할 필요가 없을 테니, 충분한 주차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서울시의 주차난 해소를 우선 과제로 두었으면 함. 그리고 왜, 임신부에게 전용 주차 공간이 제공해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가 필요함.

2) 명확한 정책 시행을 통한 약자 배려의 습관화

이에 덧붙여, (차)는 정책의 엄격한 적용, 법제화, 법적 처벌 등이 정책을 예외 없이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표면적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 이해와 공감 여부와 상관없이 “불편하고 이해도 안 되지만” 지킬 수밖에 없도록 만들면 내재적으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철저하게 규제에 따를 수는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갈등이 증폭될 수 있음 역시 (차)는 인지하고,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차)의 응답은 아래에 옮긴다.

(차) 불편하지만, 이해하겠다. 는 아니고 불편하고 이해도 안 되지만, 지키겠다. 라고 얘기하려면 법적 제재, 법적 처벌, 법제화, 가 되면 된다고 생각함. 장애인 주차 구역처럼 비임산부가 주차하는 경우 벌금 부과 등으로 강력 제재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지켜질 것이라고 판단되나, 갈등은 더욱 커질 요소가 있어 보임.

3) 태도와 결이 다른 당사자들의 뜻 모으기

장애학교, 통합교육에 대해 서술한 (다)의 경우, 표면적으로 “당사자”라는 범주에 들 수 있는 학생 지도 교사, 양육자 등 다양한 집단이 취하고 있는 태도의 차이 때문에 갈등을 겪는 이들이 생길 수 있음을 지적한다. 예컨대,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들 사이의 갈등은 없으므로 교사들은 갈등으로부터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여, 양육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갈등이 증폭되는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아래 (다)의 발언을 살펴보자.

(다) 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갈등은 전혀 없기 때문에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취하여 정작 양육 당사자 간의 갈등만 커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다)의 서술은 표면적으로 갈등을 겪는 대상들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당사자” 층 또한 면밀히 살피고, 그들의 필요와 직무 현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참여자 (바)는 양육자인데, 양육자의 입장에 대한 무지로 인해 일부 비양육자의 발언에 분노감을 느낄 때가 있다고 지적한다. (바)는 아래와 같이 언급한다.

(바) 24시간 중 24시간을 퇴근 없이 상사를 모시는 기분을 365일 느끼고 있는데 비양육자가 그 반의반 시간도 함께 하지 않기에 모르는 부분이 발생하고, 거기다 직장생활 운운하면 화가 남....

관련하여, (자) 또한 동일한 미세먼지 문제에 접근하더라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학령기 아동을 둔 학부모와 비양육자의 결이 다를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래 (자)의 응답을 살펴보자.

(자) 서로 본인이 처해있는 입장차이 같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하고, 아이가 없는 가정의 환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아이가 없다면 유치원, 학교에 보내는 자녀가 없기에 교육환경이 어떻든지 피부로 와 닿지 않을 것이고, 현재 중, 고 자녀를 둔 저는 학교에 보낼 때마다 미세먼지 예보를 보고 나뻐일시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학교에서 주의사항을 알려줘 보내고 자녀가 학교에 있는 동안 내내 저는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 노출이 얼마나 되었는지 전전긍긍할 것입니다.

나아가 (가)는 양육자와 비양육자 사이의 갈등뿐만 아니라 양육자끼리의 갈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동일한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성별 간, 세대 간 갈등이 있음을 언급한 (가)의 응답은 아래와 같았다.

(가) 양육 당사자 간이든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이든 갈등이 매우 심하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남편과도 양육을 해보았고 현재는 시어머니와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사고 자체가 다르고 여성의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남성은 전혀 공감할 하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같은 여성이지만 세대 차로 육아의 개인차가 크고 아이에게도 일관된 교육이 되지 않아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가)의 응답에서 주목할 점 중 하나는 동일 아동을 양육하는 다양한 주체들 사이의 갈등 때문에 일관된 교육이 불가능하여 미래의 사회 성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카)는 양육은 본질적으로 함께 하는 과정인데, 양육을 떠맡거나, 혼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문제를 증폭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카)의 응답은 양육은 함께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양육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됨을 시사한다.

(카)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갈등은 아이를 키워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서로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 갈등이 심한 것은 본인이 혼자 육아를 한다고 생각해서라고 생각함. 심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는 인식... 하략

참여자 (사)는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한 세대별 양육 태도의 차이, 아동의 행동반경 및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 범위에 대한 비양육자와 양육자의 인식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사) 내 아이가 즐겁게 자랐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하고 싶은 건 다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다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알려주고 교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제멋대로 행동하고 타인의 비난을 받으며 자란다는 것이 아이의 인생에 더 큰 리스크를 준다는 것을 부모도 알아야 합니다. 또 비양육자는 아이들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지 못해 이러한 것에 대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문제 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은 비단 젊은 층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다 키운 어르신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 때는 안 그랬다!, 애를 어떻게 키우는 거야!” 그만큼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적당한 통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아이를 키우던 시절과 지금은 환경도, 인식도, 교육관도 모두 다릅니다. 또 젊은 세대의 사람들은 본인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지 못하지요. 아이를 키우기 전, 아이를 키워본 지 오래되신 분들은 모두 지금 현재에서 양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 양육을 하는 이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할 곳은 모두 건물이 들어서 있고, 차가 썩썩 달리지요, 또 계곡, 바다는 식당을 이용해야 오롯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디에서 놀이해야 할까요? 어쩔 수 없이 건물 속에 있는 식당, 카페 등이 아이의 놀이 장소가 될 수밖에 없지요. 이러한 환경 또한 어쩔 수 없는 불편을 만들어 내고 서로의 입장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갈등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을 만들어 내는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 서로 조금만 배려한다면 이러한 갈등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상호 배려와 사회 환경 변화에 대한 인정, 빠른 적응이 필요함을 (사)는 언급하고 있다. 양육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양육 관련 갈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 또한 (사)는 덧붙인다.

6) 당사자 의견 존중 필요

양육 관련 갈등이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는 관점에서는 임신부 전용 공간 문제나 일요 휴무제 문제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다. 우선, 임신부 전용 공간 문제에 대하여 지적한 (차)의 응답을 살펴보자.

(차) 여성 전용 주차 공간이나 임신부 전용 주차 공간의 경우, 경험해보지 못한 경우라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고 (본인도 만삭 임신부가 되어 차에서 내려 보기 전까지 충분한 공간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 차에서 내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응답자 (라)는 학원 강제 휴무가 학습권 보장뿐만 아니라 음성 과외 증가와도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할 것을 강조한다.

(라) (코로나19로 인한 학원 강제 폐쇄 관련하여) 요즘 코로나로 공부 못하고 학교도 반쪽인데 학원은 가야죠. 학원 문제 방역절차 강화로 지키면 되는데 그저 휴무제를 고수하는 것도 문제 있어요. 그리고 휴무제 시 음성 과외 폭풍 증가도 생각해 주세요.

7) 어린이집 급식비 문제: 명확한 법제화를 통한 도구적 평등

앞서 살펴본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인식과 시민 상호 간 이해를 기저 문제로 꼽은 경우가 많았으나, 어린이집 급식비 문제의 경우 법제화를 통한 도구적 평등을 촉구하는 의견의 비율이 높았다. 아래 (사)의 응답을 살펴보자.

(사) 우리나라의 똑같은 3살~7살까지의 어린이들이 누구는 친환경 식자재를 이용한 음식을 먹고, 누구는 싸구려 식자재로 만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매우 불편한 진실입니다. 국공립은 지원금의 일부를 친환경 식자재를 이용해야 한다는 어느 정도의 의무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간, 가정, 사립은 그러한 의무가 없고 식단에 따른 음식만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식재료를 사고, 어쨌든 지원금으로 식재료만 사면 영수증 처리가 되기 때문에 ??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일축하겠습니다. 하여 민간, 가정, 사립도 어느 정도의 식재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면 이러한 불균형은 조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공적 지원금은 공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자유롭게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또한 지자체 내지 국가 단위에서 급식비를 단일화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촉구한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급식비 차등 지원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존재함을 언급한다.

(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란 들쭉날쭉한 어린이집의 급식비를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에서 단일화하여 급식비 양극에서의 점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민 청원 및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를 통해 제도화 법제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을 보육 또는 교육하는 시설이라는 한 가지 목적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별, 기업체별, 종류별 등으로 구분되는 어린이집들이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아이들의 급식비 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공평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아이들이 형편없는 음식을 먹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테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차등적인 지원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시민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갈등 관리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시민들은 다양하고 지속적인 의견 수렴, 상호 이해, 확실한 규제와 정확한 홍보를 통한 갈등 관리를 희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양육 관련 갈등이 잘 관리되고 해소되는 것에 대하여 시민들은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겠다.

6_양육 관련 갈등 관리의 기대 효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 출생률 제고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양육 관련 갈등 관리의 기대 효과를 참여자들에게 서술하도록 하였다. (가)는 아래와 같이 양육 관련 갈등 해소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출생률 제고 양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 여성은 경제활동을 점차적으로 하길 원하고 그러다 보니 결혼도 하지 않으려 하고 더더욱 아이는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남성도 육아활동의 참여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여자의 몫이 큼니다. 더군다나 여성들은 본인의 인생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자식을 위해 무조건 희생하고 본인의 삶을 가족을 위해 모두 바치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양육 관련 갈등이 많이 해결된다면 여성들의 생각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경제활동도 더 자유롭게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아이 가지는 것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마)는 임신부와 일반인 간의 갈등 해소, 임신부의 안전한 활동 공간이 보장된다면 출생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마)의 응답은 아래와 같았다.

(마) 임신부와 일반인들의 갈등이 해소되어 임신부들이 그들만의 공간이 확보되어, 모든 곳에서 활동이 안전하게 보장된다면 출생률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나) 또한, 양육 갈등 해결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한다. 특히, 육아가 개인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의 책무임을 인식하고 육아가 생물학적 어머니에게만 전적으로 지워진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는 사회 인식의 개선 필요성을 촉구한다. (나)의 응답은 아래에 옮긴다.

(나) 과거에 육아는 공동체 집단이 함께하던 일이었습니다. 바쁘면 할머니가, 할아버지, 친척 등 부모 이외의 사람들이 함께 아이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도시 이주 등으로 공동체가 빠르게 해체되면서 그 책임은 오롯이 부모에게 넘어왔고, 심지어는 엄마 혼자 독박 육아를 하기도 합니다. 적게 낳으면서 아이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소득이 늘면서 안전에 대한 요구도 커집니다. 일하는 엄마를 무관심한 엄마로 몰고 가는 분위기,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맞벌이는 필수... 아이를 낳으면 몇 년 동안의

현신은 출산율이 개선된 다른 국가들은 이민자 증가, 동거 출산, 저연령 출산은 다른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생은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다양한 원인들이 모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몇 가지 요인으로 결론지을 수 없기에... 개인에게 전적으로 지워진 책임과 의무를 사회가 함께 나누고, 사람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인식의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적 제도가 탄탄하게 받쳐준다면 현실적인 어려움에 조금은 더 도움이 되어서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나)는 양육 갈등과 출생률의 연관에 대해서는 확실한 전망을 하지 않는다. 저출생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초래된 결과라고 언급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육을 사회의 공동 책무로 인식하고, 양육을 위한 사회적 제도가 확충된다면 출생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사회 성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양육 갈등 관리, 해소와 여성 경제 활동 참여에 관해서는 긍정적 연관성을 지적한 참여자들이 대다수였다. 아래 (카)와 (아)의 응답을 살펴보자.

(카) 양육갈등 해결은 양육가정 경제활동 증가에 도움이 된다. 양육을 하는 것에 갈등은 양쪽 부모에게 모두 심리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갈등 해결은 경제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 출생률의 증가에는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아) 편하게 마음 놓고 아이를 맡겨둘 수 있는 곳만 있다면, 육아로부터 직장 및 사업장에서 배려받을 수 있다면 훨씬 경제활동 증가 및 일의 능률과 효율이 올라갈 것으로 본다. 양육 관련 갈등의 해결이 곧 출생률 증가로 이어지진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갈등의 해결로 현재의 삶을 더 즐겁고 행복하게 영위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들의 경우 임신 이후에도 이어지는 회사 생활(출산 휴가 전) 중 병원 검진 및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서 업무로 인한 불안감, 출산 후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 복직 시 돌봐줄 수 있는 기관 및 대체 인력들의 부재로 인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며 이는 남성들도 비슷한 유형의 스트레스들을 지니고 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 라는 말이 있듯이 가정에서의 갈등이 해결되고 가정이 행복해지면 자연히 국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자 (차)는 양육 관련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정은 양육을 포기할 것이고, 이는 출생률 감소로 직결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차)의 응답은 아래와 같았다.

(차) 양육관련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양육을 포기하는 가정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이는 출생률 감소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즉, 양육관련 갈등 해소가 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어쩔 수 없이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도움 정도의 소극적 개념이 아니라 양육 가정 경제활동 증가, 출생률 증가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속제로 적극적 해결이 필요하다.

참여자 (차)는 양육 관련 갈등 해소를 적극적 해결이 필요한 사회적 속제로 간주한 동시에, 양육을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시각을 촉구한다. (차)의 응답에서 나타난 구체적 사례는 아래와 같다.

(차)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우선순위나 이해의 범위가 달라서라고 생각함. 회사를 예로 들면 양육자의 경우, 회사 일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아이 돌봄이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비양육자의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양육을 사회적 문제로 여기지 않고 개인적 문제로 여기어 아이 돌봄을 우선시하는 양육자를 회사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잦음.

참여자 (차)의 응답과 같은 맥락에서, 참여자 (사)는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활동이 필수적이고 양육에 있어서는 공동체의 보조가 필수적임을 지적한다. 특히 과도하게 장시간 동안 시설에 보육을 일임하는 것이 양육자에게 어떠한 심리적 부담이 되는지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아래 (사)의 응답을 살펴보자.

(사) 동생을 만들어 주고 싶었지만 만들어 주지 못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어린 시절 가정 양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가정양육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 또한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기도 했지요. 아이를 위해서 돈은 벌어야 하는데, 또 아이를 위해선 내가 집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이러한 갈등은 어느 부모나 하고 있는 갈등일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그 어느 것도 충족되

지 않는 상황에서 위태롭게 외출타기를 한다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하며 늦게 끝나는 날이 많아 저희 아이는 아침에 첫 번째로 등원을 하고 7시 30분.. 제일 늦게 하원하곤 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2살부터 6살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둘째를 생각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조부모의 도움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말.. 많이 들어 보셨지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조건이 '부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이라고. 그만 큼 아이를 키우는 데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며 아이를 돌봐 줄 조부모도 없을뿐더러 전세, 대출금... 이러한 상황은 내 아이가 예쁘지만,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있게 만들지만...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아가, (사)는 양육과 가사에 대한 부부의 공동책임이 양육 부담을 경감하지만, 첫째 아이의 양육 부담의 경감이 둘째 아이 출산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둘째 아이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이 양육 부담 경감보다 더 심각하게 체감되기 때문이다. 아래에 (사)의 응답을 옮긴다.

(사) 저희 부부는 양육에 대한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시간이 되는 사람이 무조건 아이와 놀 것! 시간 되는 사람이 먼저 집안일 할 것! 모든 것은 혼자 가 아니라 같이 할 일! 이라는 무의식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감소되었지만 경제적인 해결책이 없는 한 둘째에 대한 생각은 할 수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참여자들은 양육 갈등의 해결은 가정 경제활동 증가, 특히 여성 경제활동의 증가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모든 참여자가 양육 갈등의 해결이 출생률 제고로 연결될 것이라고 전망하지는 않았다. 가장 비판적인 경우 양육 갈등의 해결은 출생률과 무관하다고 간주한 의견도 있었다. 현실적으로 첫째 아이의 양육 중에 발생하는 갈등이 해소되고 양육 부담이 경감되어도 두 아이 이상의 양육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7_심층 인터뷰 결과 요약

11인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이 간추릴 수 있다. 실제 갈등 해소를 위하여 직접 시 또는 시교육청과 소통을 한 인터뷰 응답자의 경우, 서울시의 노력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갈등 해소 과정에서 서울시가 잘한 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 특히 갈등 해소를 위해 소통할 필요가 있는 대상들을 한자리에 모이도록 하고, 역할을 바꾸는 활동을 주기적으로 주최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반면, 갈등 해소를 원하는 다양한 소통 대상들을 연결하는 가장 효율적,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였다. 아울러 실제 갈등 해소를 위한 관과의 소통을 경험하지 못한 응답자들의 경우 구체적으로 서울시가 어떠한 활동을 통해 갈등 관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인터뷰 응답자들과 설문 응답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인 사안은 거의 동일하였다. 응답 양식의 차이와 무관하게 임신부 전용 공간, 급식비 문제, 특수학교 설립 문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응답자들이 안타까움을 표한 점은 시정에서 양육이 우선순위라는 인상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특히 임신부 전용 공간 문제의 경우 실행에 강제성이 없어 실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급식비 문제의 경우 도구적이거나 평등을 도모하는 법제화를 원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드러났다. 정책 시행에 있어서는 강제성 부여, 법제화 이전에 충분한 정기적인 모임, 심층적인 토의 등을 통한 의견 교환, 의견 수렴, 시범 시행이 필수적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갈등의 정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양육 관련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고, 가장 흔한 갈등의 원인으로 미경험, 무지를 꼽았다.

마지막으로 양육관련 갈등 해소와 저출생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양육관련 갈등이 심화될 경우 양육을 포기하는 가정이 증가하여 저출생 양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하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응답이 있었는데, 일부 응답의 경우 양육 관련 갈등 해소가 저출생의 대안이 된다고 간주하였다. 반면, 일부 응답자들은 양육 관련 갈등은 저출생의 다양한 원인 중 하나이므로 단편적으로 표면화된 양육 관련 갈등을 해소한다 해서 저출생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0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서울을 생활권으로 하는 만 15세 이상 양육자 및 비양육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와 지면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양육자들은 설문과 인터뷰 모두에서, 현 사회가 차별과 소외가 만연하며, 공공 기관의 갈등 관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였고, 갈등 해소에 대하여 양육 당사자의 의사결정 참여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 해결 방식이 양육의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양육 관련 사회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양육 관련 갈등 문제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행정과 정치, 그리고 시민사회가 역동적으로 변화되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양육 당사자의 제한적 참여, 갈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관리제도의 미비, 사회적 협력 규범의 부족, 갈등 예방 및 해결과 관련된 사회 인프라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의 이익갈등이나 양육 문제로 발생하는 갈등의 대부분은 그 해결에 있어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모든 정책은 예상하지 못한 대상에게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발생시킨다. 원칙적으로 정책을 개발할 경우, 새로운 정책이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정적 영향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전문성 확보 방안과 갈등 관리를 위한 선제적,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차별받고 소외된 양육자의 기본 인권과 아동의 성장권 및 학습권, 돌봄권 등을 보장하는 양육 환경 구축을 위하여, 서울시의 양육 관련 정책에 대한 갈등 관리제도의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05. 정책 제안

1_사전 갈등 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사회 및 공공갈등은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나, 갈등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가능하면 정책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갈등은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공공기관 갈등 관리기본법은 사전 갈등 예방에 초점을 두면서, 정부의 정책결정 초기 과정에서부터 시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정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갈등영향 분석과 참여적 의사결정방법, 갈등조정회의 등의 절차를 통해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이미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절차를 적용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구축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적극적 시민참여와 같은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에 의존하여 갈등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투쟁과 폭력, 시위 등을 통해 자신이나 집단의 이해를 반영하려고 시민과 신속한 정책결정만을 선호하는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회 갈등 예방을 위한 적극적 양육자 참여 제도가 서울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 의식의 성숙과 공동체 문화 형성이 중요하다. 아직까지 우리 문화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양보와 호혜에 익숙하지 못한 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 협상, 양보 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정부의 양육 관련 문제해결 방식은 갈등이 발생하면 사후에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다 보니 갈등을 해결하려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후 갈등 해결보다는 사전갈

등 예방으로 갈등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공공 계획의 부정적 결과를 시정하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계획 입안에서부터 함께 참여함을 통해 사전에 갈등 원인을 제거하려는 서울시의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예컨대 어린이집 급식비가 오랜 기간 동결되어 차등 지원되는 문제가 이슈화된 후 관련 부처에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게 되는 등 문제 발생 후에 해결하는 관점이 아니라, 사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학부모, 보육교사 등 관련자의 급식에 관한 의견을 자주 취합하는 등, 양육 관련 문제가 촉발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이슈 발굴 설문 조사를 상설화하여 갈등 예방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방안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제적 접근은 이미 문제가 촉발되었더라도 조기 개입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갈등 해소 이후의 예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갈등에 대한 사전예방은 사후관리보다 사회적 비용이 적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정책에 대한 양육 갈등 당사자들의 신뢰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임을 명심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2_양육 갈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정책: 참여 거버넌스 구축

본 보고서에서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정책결정과 정에서의 양육자의 참여 확대에 있다고 제안한다. 즉, 기술관료적 공공의사결정시스템에서 다원적 의사결정시스템을 거쳐,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참여 거버넌스는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한 정의상의 갈등(definitional conflict)을 해소시키고,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통해서 정책결정의 합리성 범위를 확대하며, 피상적인 투표 민주주의에서 속의 민주주의로 발전시킴에 따라, 결과적으로 공공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가져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사전적 예방과 분쟁의 사후적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원받음으로써 사회 전반의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기를 제안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민 협의제도의 개선과 다음에 제시한 여러 정책들, 즉, 양육 가정에 찾아가는 주민자치회, 우리동네 보육반장의 역량 강화를 통한 양육 가정에 실제적 도움을 제공할 갈등 해소 전문가 육성, 온라인 양육 이슈 발굴 설문 조사의 상설화, 그리고 양육자 참여를 보장하는 오프라인 양육 이슈 발굴 토론회 및 공청회의 정례화 운영 및 활성화의 네 가지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1) 양육 가정에 찾아가는 주민자치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 양육자는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인 데다 양육 노동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이 과중하기 때문에 양육자들의 목소리는 속의 민주주의 과정, 정책 결정 및 실행 과정에서 배제될 위험이 높은 환경에 놓여있다. 당사자이지만 당사자들이 직면하는 양육 환경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작금의 현실은 양육자와 정책 결정, 집행 기관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낳을 위험을 증가시킨다. 이와 같은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당사자인 양육자가 겪는 갈등과 그들의 입장에 대해 열린 태도를 취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먼저 찾아 들을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정책 결정이나 실행 과정에서 배제될 위험이 높은 양육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채널로 주민자치회 등의 마을 기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주민자치회의 운영 하에 주민자치위원 및 분과위원을 활용하여 마을에 속한 양육 가정의 어려움과 고충을 선제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양육 관련 의제를 발굴하는 방법이다.

물리적 제약에 따라 표면 위로 드러나지 못하여 해소될 기회를 갖지 못한 양육 관련 갈등 문제를 능동적으로 찾아 해소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양육 당사자가 관련 정책 결정과 실행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방법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

2) 양육 가정에 실제적 도움을 제공할 갈등 해소 전문가 육성: 우리동네 보육반장 역량 강화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문가 인력이 풍부하게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갈등 관련 전문가 양성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양성훈련기관의 교육훈련 이후에 공공 분쟁 및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중재, 조정, 알선,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갈등 해결 교육의 전문가, 강사로 활동할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전문가 양성기관은, 직접 양성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대학이나 민간단체에 일정 기준을 갖춘 과정을 개설하면 운영비나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마을 단위로 갈등 관리 전문가를 육성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현재 마을의 양육 가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동네 보육반장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나 자원이 정책적 연결 고리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사실상 양육 당사자 각자가 도생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양육자가 체감하는 양육 갈등의 강도를 고려해 볼 때 보다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자원을 제공할 갈등 관리 전문가의 육성이 시급하다. 특히 기존 보육반장의 역량 강화를 통해 기존 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발생 가능한 갈등 상황과 그에 따른 대처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보육반장이 양육 가정에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양육 가정에 속한 아동의 발달 상황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양육 갈등 관리가 가능한 역량의 보육반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한다. 아울러 양육 관련 갈등이 표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양성된 전문가나 리더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양육자의 어려움이 증대되어 갈등으로 촉발되지 않도록 초기 관리를 도울 뿐 아니라 갈등으로 촉발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 상황을 예측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3) 온라인 양육 이슈 발굴 조사의 상설화

이 방법 역시 앞서 언급한 마을 자원 활용 방안의 이유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아동의 돌봄이라는 물리적, 시간적 제약 조건에 따라,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양육자를 위한 방법으로 ‘찾아가는 주민자치회’ 방안과 병행하면 효과적일 것이라 사료된다. 더욱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현 상황에서 대면이 요구되는 오프라인 활동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온라인 이슈 발굴은 간편한 설문에서부터, 오프라인 회의를 온라인으로 대체한 방법까지 양육자들의 각기 다른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시도되어야 한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대표적인 속의 민주주의 활동인 ‘2020 서울 시민회의’가 주최되고 있다. 서울시 정책에 관심 있는 서울 시민 3천 명을 대단위로 모집하여, 코로나 이후 시민 주도 사회적 재난 대응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주제별 시민회의를 거쳐 최종 시민총회에 주요정책 공론화와 결정을 추진하는 형식이다. 회의의 형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로 온라인 영상 송출을 통한 회의 중계,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그룹별 토의, 그리고 각종 온라인 투표 장치를 활용한 의견의 취합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20 서울 시민회의는 실효성 없는 일회성의 회의가 아니라, 여러 번의 의견 취합 과정을 거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또 폭넓게 반영되면서 반대 의견에 있던 개인들이 서로 경청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드러나 있다. 서울시의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속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양육 관련 이슈에 적용하여, 양육 관련 갈등을 해결하는 온라인 상설 토론회를 개설하여 여러 제약을 뛰어넘는 편의를 양육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4)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오프라인 양육 이슈 발굴 토론회 및 공청회의 정례화

제3자를 활용한 양육 갈등 당사자의 개별 의견 취합이나,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토론 등이 양육자 등 당사자의 입장에서 효율적이기는 하나, 전체적 관점에서는 이 역시 차선책일 뿐 직접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 모색보다 최고의 대안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오프라인 양육 이슈 발굴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정례화되, 양육자가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주민자치회나 우리동네 보육반장, 그리고 보육 또는 교육기관 등 양육자에게 직접 닿을 수 있는 수단을 통한 회의의 직접 홍보, 지역 거점 토론회 활성화를 통한 이동 거리 조정, 양육하는 아동을 회의 장소에 부담 없이 데려올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제공, 양육자와 아동의 생활 패턴

에 적합한 회의 시간대 조정 등(권현경, 2019a)을 통하여 양육자들의 직접 참여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양육 대상자인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권, 학습권, 돌봄권 등 기본 인권을 직접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갈등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을 의제 해결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설문과 인터뷰 참여자들을 통하여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아동·청소년도 양육이라는 분야의 당사자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관련 정책에서 아동·청소년의 의견도 중요한 비율로 반영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서울 청소년 특별의회 등 상설 회의들이 개설되어 있고 학교 단위로 학급 및 임원 회의도 잦은 편이라 양육자와는 다르게 항시 의견을 받는 통로는 다양하게 열려 있다. 또한 민주 시민 교육 등의 교과 과정과 특강 등을 통하여 속의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도 기성세대에 비하여 충분하게 익히고 있다. 그러나 정작 갈등 상황에는 아동·청소년의 의견은 배제되어 단순 설문 조사로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갈등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이러한 심각한 갈등 상황이 아동·청소년 상설 회의에서 주도적으로 해결되고 정책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전문 갈등 관리위원회를 개설하고 아동·청소년들을 위원회 구성원으로 다수 참여시키며, 상설 위원회와 협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 당사자들도 이러한 회의들에 수시로 의견을 내고 이 의견들을 정책에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여야 한다.

양육, 교육 등 여러 제약으로, 의견을 직접 반영시키지 못하고 갈등의 한복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서울의 양육 당사자들이, 위와 같은 정책들을 통하여 갈등 없이 아이를 키우고 아동·청소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서울시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혁주, 2016, “한국 사회 갈등과 사회통합 방안: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행정논총』, 54권 2호, pp.93~116,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박수선, 2015, “당사자간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 사례 연구: 울진 신화리 원전 주변지역 갈등조정 과정을 중심으로”, 『공존협력연구』, 1권 1호, pp.75~107.
- 서울특별시, 2018, 『2018 갈등 관리 매뉴얼』, 서울특별시
- 이원태·김종길·김희연, 2012, 『디지털 사회 갈등의 새로운 양상과 사회 통합의 정책방향』, 방송통신위원회
- 임동진·김재일, 2010, 『중앙정부의 공공갈등 관리 실태분석 및 효과적인 갈등 관리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강원도교육청 학생기자단, 2018.6.1., “차별과 편견이 없는 세상을 꿈꾸다. 동해시 특수학교”, 강원도교육청 블로그, <https://m.blog.naver.com/happygwedu/221289300798>
- 강은나래, 2018.9.5., “서울교육청, 장애학생 지원 확대…‘특수학교’ 갈등은 여전”, 연합뉴스TV,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336848>
- 고영득, 2019.7.28., “서울시, 8월부터 공영주차장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조성”,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281133001&code=620100#csidx7805e35355534a8b45e9496aaa0fe40
- 구무서, 2019.10.22., “갈등 끝 송정중 생존…서울교육청 안일한 대응이 화 키웠다”,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191022_0000806428&clD=10201&plD=10200
- 권오진, 2019.7.30., “서진학교 개교 내년 3월로 연기...주민 민원에 공사 연장”, 연합뉴스, https://www.ytn.co.kr/_ln/0103_201907301825022062
- 권현경, 2019.4.2.a, “부모들 의견 듣겠다더니… ‘양육’ 없는 양육자 회의?”, 베이비뉴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263>

- 권현경, 2019.7.25.b, “엄마·아빠가 공무원이 아니라서 미안해”, 베이비뉴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864>
- 김수연·강동웅, 2019.11.27., “‘학원 일요휴무’ 수순 밟는 서울교육청”, 동아일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127/98550076/1>
- 김영선, 2019.7.17., “‘어린이집이 혐오시설인가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그늘”,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8848&code=11131100&cp=nv>
- 박성은, 2019.12.21., “[D스토리] 계속되는 임신부 배려석 갈등…‘탁상행정’ vs ‘약자 배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0126300797?input=1195m>
- 박용준, 2019.10.17., “(2019 국감)서울지하철, 증가율 1위 민원은 ‘임산부석’”, 뉴스토마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26949>
- 박익래, 2019.7.31.,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키움 센터와 통합해야”,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731089400004?input=1195m>
- 신태현, 2018.1.23., “서울 시민 ‘갈등은 발전 동력…탄핵 겪고 자신감 생겨’”, 뉴스토마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02029>
- 장휘경, 2018.12.17., “혁신학교 등 교육 현안 갈등 속출…해법은 없나?”, 일요서울,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4630>
- 조아름, 2019.9.19., “서울시내 ‘학원 일요휴무제’ 갈등 재점화”,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191680329396>
- [https://infogram.com/--1gk9vp17qd45p4y\(임산부 좌석 배려 캠페인에 대한 인식 조사\)](https://infogram.com/--1gk9vp17qd45p4y(임산부 좌석 배려 캠페인에 대한 인식 조사))

부록

1_설문지

"갈등 없는 아이 키우기" 설문조사

* 필수항목

거주지

1. 2020년 2월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시거나 서울시 소재 직장/학교를 다니십니까?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예
 아니오

다음 문항들은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을 읽는 즉시 떠오르는대로 응답해주세요.

2. 요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3.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전혀 믿을 수 없다 매우 믿을 수 있다

4.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매우 동의 매우 반대

5.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매우 동의 매우 반대

6.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이다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매우 동의	<input type="radio"/>	매우 반대				

7.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매우 동의	<input type="radio"/>	매우 반대				

8.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매우 동의	<input type="radio"/>	매우 반대				

9. 현재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input type="radio"/>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갈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 의견들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10. 사회갈등은 사회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전혀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radio"/>	매우 동의				

11. 사회갈등은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면이 많다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전혀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radio"/>	매우 동의				

12. 사회갈등이 발생하면 많은 사회적 낭비를 초래한다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전혀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매우 동의

13. 사회갈등은 갈등 당사자가 직접 해결하는 것이 좋다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전혀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매우 동의

14. 사회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3자가 중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전혀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매우 동의

15. 사회갈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전혀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매우 동의

전반적으로 볼 때, 현재 우리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

16.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배려와 포용의 사회

17.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서로 믿지 못하고 이심하는 사회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

다음 사람들을 떠올릴 때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응답하여 주세요.

30. 부자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존경할만한 사람이 아니다	<input type="radio"/>	존경할만한 사람이다				

31. 성공한 CEO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존경할만한 사람이 아니다	<input type="radio"/>	존경할만한 사람이다				

32. 정치인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존경할만한 사람이 아니다	<input type="radio"/>	존경할만한 사람이다				

33. 공무원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존경할만한 사람이 아니다	<input type="radio"/>	존경할만한 사람이다				

다음의 갈등이 서울에서 얼마나 자주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4. 시설 반대 갈등 (특정 시설의 입지 혹은 관련 사항들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 예: 특수학교 설립 위치 갈등,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신설 갈등, 쓰레기 처리장 위치 갈등 등)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매우 자주 발생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35. 시설 찬성 갈등(특정 시설의 입지 혹은 기타 관련 사항들을 여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예: 송정중 폐교반대 갈등, 고속도로 진입로 위치 관련 갈등 등)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매우 자주 발생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36. 도시 정비 관련 갈등(노점상 관련 거리 정비, 노후 도시 재생/재개발 등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갈등)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매우 자주 발생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37. 보편적 이익갈등(서울시민 전체 혹은 큰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생기는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 예: 공무원 직장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급간식비 차이로 인한 갈등,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 관련 갈등, 대학등록금 반값 추진 관련 갈등 등)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매우 자주 발생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38. 보편적 가치갈등(서울시민 전체 혹은 큰 인구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가치를 둘러싼 갈등. 예: 임신부 배려석, 학원 일요 휴무제, 돌봄센터 관련 갈등)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매우 자주 발생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39. 2020년 2월 기준 임신부이십니까?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아니요 40 번째 질문으로 건너뛰세요.
- 현재 아니지만 임신한 적이 있음 40 번째 질문으로 건너뛰세요.
- 초기 임신부 (~14주) 42 번째 질문으로 건너뛰세요.
- 중기 임신부(15~28주) 42 번째 질문으로 건너뛰세요.
- 후기 임신부(29주 이상) 42 번째 질문으로 건너뛰세요.

40. 대중교통에서 임신부에게 좌석을 배려한 경험이 있습니까?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임신부석을 일부러 비워 두었다 44 번째 질문으로 건너주세요.
 임신부석을 양보해본 적이 있다. 44 번째 질문으로 건너주세요.
 일반 좌석을 양보해본 적이 있다 44 번째 질문으로 건너주세요.
 노약자석을 양보해본 적이 있다 44 번째 질문으로 건너주세요.
 없다 41 번째 질문으로 건너주세요.

44 번째 질문으로 건너주세요.

41. 임신부에게 좌석을 배려한 경험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두 선택해주세요. *

해당 사항에 모두 표시하세요.

- 대중교통에서 임신부를 본 적이 없어서
 자리를 양보해야 하는지 몰라서
 빈 좌석을 비워두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아서
 내가 힘들어서
 임신부인지 알 수 없어서

기타: _____

44 번째 질문으로 건너주세요.

임산부

42. 임신부 표식(가방고리, 카드지갑)을 착용하고 다니십니까?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네
 아니오
 예전에 착용했으나 지금은 하지 않음

43. 임신부 표식을 착용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해당 사항에 모두 표시하세요.

- 표식 착용을 해도 혜택이나 배려가 없어서
 타인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느낌이 들어서
 나의 임신 사실을 타인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구할 수 없어서 (구하려 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물량 부족, 수령 장소를 몰라서 등)

기타: _____

44. 평소 대중교통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1주일에 4번 이상
 1주일에 1~3번
 2주일에 1~2번
 한달에 1~2번 이하
 임신 중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45. 현재 임신부 배려석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예 47 번째 질문으로 건너뛰세요.
 아니요 46 번째 질문으로 건너뛰세요.
 잘 모르겠다 47 번째 질문으로 건너뛰세요.
 상황에 따라 다르다 46 번째 질문으로 건너뛰세요.

46. 현재 임신부 배려석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이유를 모두 체크해주세요. *

해당 사항에 모두 표시하세요.

- 임신부 배려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해서
 스마트폰을 하느라 미처 보지 못해서
 초기 임신부라 티가 나지 않아서
 환자 또는 노인에게 우선 양보하느라
 임신부석이 의무가 아니라서
 임신부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있지 않아서
 임신부 표식 (가방고리, 카드지갑)에 대한 홍보 부족
 기타: _____

임산부 전용 주차공간

47. 오늘까지 임신부 전용 주차공간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예
 아니요

48. 임신부 전용 주차공간에 대한 의견은?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찬성
 반대

49. 임산부 전용 주차공간이 제대로 이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산부 전용 주차공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경우 추측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input type="radio"/>				
매우 그렇다					

50. 임산부 전용 주차공간의 문제점 혹은 개선점에 대하여 자유롭게 써 주세요.

돌봄센터 갈등

51. 모든 아동이 특별한 제한 없이 방과 후에 이용할 수 있는 온종일돌봄센터와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차별대우 및 아동 낙인 문제에 대하여 오늘 이전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예

아니요

52. 방과후 돌봄이 저소득층 아동 이용 기관과 그 외 아동 이용 기관으로 나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보통

문제가 있는 편이다

보통

별로 문제가 없다.

전혀 문제가 없다

53. 지역아동센터로 인한 갈등문제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송정중 폐교

54. 송정중 폐교(우수 혁신학교로 지정되었으나 인근 신도시에 새 학교가 생기면서 통폐합으로 폐교)로 인한 갈등에 대하여 오늘 이전에 들어보셨습니까?*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예

아니요

55. 교육청 및 지자체 주도로 학교가 설립/폐교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예
 아니오

56. 학교의 설립/폐교 등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학생의 통학 거리 및 통학 안전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편의
 교육청 운영의 효율성
 지역 이미지
 기타: _____

단지 내 어린이집

57.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을 신설할 경우 주민들의 반대로 인한 갈등이 발생합니다. 오늘 이전에 이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예
 아니오

58. 거주하시는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찬성
 반대

59. 찬성 또는 반대하신 이유를 적어주세요.

급식비

60. 2019년 하루 급식비 기준으로 서울시 공무원 직장 어린이집(최대 6391원)과 일반 어린이집(국공립 포함, 최저 1745원)의 급식비가 최대 4600원까지 차이나는 것을 오늘 이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예
 아니오

61. 공무원 직장 어린이집과 일반 어린이집의 급식비 차등 지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매우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편이다
 보통
 별로 문제가 없다.
 전혀 문제가 없다

62. 급식비 차등 지급 갈등을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원 일요 휴무제

63. 오늘 이전에 학원 일요 휴무제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예
 아니오

64. 학원 일요 휴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일요일에 학원이 쉬어야 한다.
 일요일에도 학원을 운영해야 한다.

65. 학원 일요 휴무제를 시행하면 사교육이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줄어든 것이다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늘어날 것이다

특수학교

66. 경서구 특수학교(장애인 학교) 신규 설립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오늘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예
 아니오

67. 만약 집 근처에 특수학교가 설립된다면 귀하의 의견은?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찬성 68 번째 질문으로 건너뛰세요.
 반대 70 번째 질문으로 건너뛰세요.

68. 특수학교 설립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동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
 원거리 통학의 어려움
 장애학생과 그 가족도 우리 지역의 일원이므로
 기타: _____

69. 특수학교 설립 갈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72 번째 질문으로 건너뛰세요.

70.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지역 이미지 훼손
 위험/무서움 등 피해를 입을 가능성
 다른 시설이 들어오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유 없음
 기타: _____

71. 특수학교 설립 갈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아래는 서울시청 및 각 구청, 서울시교육청 등의 정책으로 양육자(아이를 키우는 사람)가 다른 양육자들 또는 양육자가 아닌 집단과 갈등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임산부 전용 공간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및 임산부 전용 주차공간)

공무원 직장어린이집과 다른 어린이집 급식비 차이

송정중 배교

학원 일요 휴무제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 설립 갈등

지역 내 장애학교 설립 갈등

지역돌봄센터와 순흥돌봄센터 갈등

72. ※위 갈등 외에 서울시정 및 각 구정, 서울시교육청 등의 정책으로 양육자에게 갈등이 발생한 경우를 보신 적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73. 위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소 '들어본' 항목에 대해서만 표시해주세요.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매우 심각	심각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
임산부 전용공간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어린이집 급식비 차이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송정중 폐교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원 일요휴무제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단지내 어린이집 설립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지역 내 장애학교 설립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돌봄센터 갈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표시 항목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74. 예시 경우 및 ※표시 문항의 갈등을 직접 겪은 당사자이십니까? 해당되는 경우를 모두 표시해주세요. *

해당 사항에 모두 표시하세요

- 아니요, 당사자가 아닙니다.
- 현재 임신 중이며 임산부 전용공간을 이용하다 갈등을 겪어 보았음
- 임산부 전용 공간에서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제로 임산부 등과 갈등을 겪어본 적이 있음
- 공무원 직장어린이집과 일반 어린이집 급식비가 차이나는 문제로 갈등을 겪어본 적이 있음
- 송정중 폐교 문제로 갈등을 겪은 적이 있음
- 학원 일요휴무제 문제로 갈등을 겪은 학생
- 학원 일요휴무제 문제로 갈등을 겪은 학부모
- 학원 일요휴무제 문제로 갈등을 겪은 학원 관계자
-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설립으로 갈등을 겪은 어린이집 관계자
-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설립으로 갈등을 겪은 어린이집 학부모
-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설립으로 갈등을 겪은 아파트 주민
- 지역 내 장애학교 설립으로 갈등을 겪은 학부모
- 지역 내 장애학교 설립으로 갈등을 겪은 학교 관계자
- 지역 내 장애학교 설립으로 갈등을 겪은 지역 주민
- 지역 내 장애학교는 없지만 장애학교를 보내기 원하는 학부모
- 지역돌봄센터 이용 학부모
- 지역돌봄센터 교사
- ※표시 항목의 당사자

위와 같은 양육 관련 갈등이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부터 3순위까지 표시해주세요.

75. 1순위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양육과 관련된 공공갈등 관련 법/제도/절차의 미비
- 양육 정책에 대한 공개된 정보의 부족
- 양육 당사자의 의사결정 참여기회(구조) 부족
- 정부의 일방적인 양육정책(사업) 추진
- 양육 당사자와 정책 실행자(공무원) 간의 의견교류, 토론 등 소통문화의 부족
- 양육 당사자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신뢰 부족
- 환경/안전/건강/경제 등 양육 외 각종 문제에 대한 시민의 요구 증대
- 양육 당사자와 비양육자 간의 상호불신에 따른 감정적 대립
- 양육 당사자와 비양육자 간의 서로 다른 가치·인식·신념의 차이
- 경제적 이익관계(자산가치, 지가 등)의 충돌

76. 2순위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양육과 관련된 공공갈등 관련 법/제도/절차의 미비
- 양육 정책에 대한 공개된 정보의 부족
- 양육 당사자의 의사결정 참여기회(구조) 부족
- 정부의 일방적인 양육정책(사업) 추진
- 양육 당사자와 정책 실행자(공무원) 간의 의견교류, 토론 등 소통문화의 부족
- 양육 당사자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신뢰 부족
- 환경/안전/건강/경제 등 양육 외 각종 문제에 대한 시민의 요구 증대
- 양육 당사자와 비양육자 간의 상호불신에 따른 감정적 대립
- 양육 당사자와 비양육자 간의 서로 다른 가치·인식·신념의 차이
- 경제적 이익관계(자산가치, 지가 등)의 충돌

77. 3순위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양육과 관련된 공공갈등 관련 법/제도/절차의 미비
- 양육 정책에 대한 공개된 정보의 부족
- 양육 당사자의 의사결정 참여기회(구조) 부족
- 정부의 일방적인 양육정책(사업) 추진
- 양육 당사자와 정책 실행자(공무원) 간의 의견교류, 토론 등 소통문화의 부족
- 양육 당사자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신뢰 부족
- 환경/안전/건강/경제 등 양육 외 각종 문제에 대한 시민의 요구 증대
- 양육 당사자와 비양육자 간의 상호불신에 따른 감정적 대립
- 양육 당사자와 비양육자 간의 서로 다른 가치·인식·신념의 차이
- 경제적 이익관계(자산가치, 지가 등)의 충돌

서울시에서 위와 같은 양육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한 민주적 갈등관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8.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아주 잘 됨	<input type="radio"/>	전혀 안 됨				

79. 당사자가 아닌 시민 간 대화와 타협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아주 잘 됨	<input type="radio"/>	전혀 안 됨				

80. 서울시의 공공갈등 관리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아주 잘 됨	<input type="radio"/>	전혀 안 됨				

81. 구청의 공공갈등 관리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아주 잘 됨	<input type="radio"/>	전혀 안 됨				

서울시 및 구청의 양육 관련 갈등관리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82. 1순위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기관장의 관심 부족
- 공무원들의 인식부족
- 갈등관리 담당인력의 부족
- 갈등해결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 갈등 이슈가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져서
- 이해 당사자 간의 비협조적인 태도
- 갈등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 기타: _____

93. 양육관련 갈등 해결이 출생률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매우 도움이 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94. 현재 서울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양육 관련 갈등은 우리 사회의 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공공갈등으로 인해 집단 갈등이 유발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이다
 집단 간 갈등은 집단 간 의사소통을 촉진하여 장기적으로는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이다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양육 관련 갈등이 과거 5년 전에 비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95. 갈등 범위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매우 축소됨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매우 확대됨				

96. 갈등 강도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매우 축소됨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매우 확대됨				

97. 갈등 횟수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매우 축소됨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매우 확대됨				

현재와 비교하여 향후 5년 후의 양육 관련 갈등의 수준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98. 갈등 범위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매우 축소될 것이다 매우 확대될 것이다

99. 갈등 강도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매우 축소될 것이다 매우 확대될 것이다

100. 갈등 횟수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매우 축소될 것이다 매우 확대될 것이다

101. 서울시의 양육 관련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방안들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개인식별정보

102. 응답자 성함 *

103. 성별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남
- 여
- 명시 안함

104. 주소 (00구 XX동까지 적어주세요) *

105. 전화번호(010XXXXYYYY) *

106. 현재 공공기관에 근무하시거나 전에 근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예, 현재 근무 중입니다.
 예, 전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오

107. 사회학, 정치학 등을 대학에서 전공하셨거나 현재 공부하는 중이십니까?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예
 아니오

108.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체크하십시오. 정당(정치) 혹은 시민단체 활동을 *

해당 사항에 모두 표시하세요.

- 직업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은 제외함)
 후원하고 있다
 적극 참여하고 있다 (예: 기자회견, 간담회 참석 등)
 관심은 있지만 참여하지 않는다.

109. 2020년 2월 기준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만 15~19세
 만 20~29세
 만 30~39세
 만 40~49세
 만 50~59세
 만 60~69세
 만 70~79세
 만 80세 이상

양육
 자녀
 부

양육자의 기준

1. 꼭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성인 구성원일 경우
2. 가족이나 친척 아동의 양육을 담당할 경우(한계 설치 않더라도 낮시간 포함하여 주로 아이를 돌볼 경우)
3. 아이돌봄을 직업으로 할 경우(정부 및 사설 아이돌봄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및 지역 돌봄교사, 공공기관 보육관련부서 등)

110. 현재 만 18세 이하 아동의 양육자이십니까?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네 111 번째 질문으로 건너뛰세요.
 아니오 (첫 아이 임신 중일때도 이 항목에 체크해주세요)

111. 귀하의 양육 형태를 모두 선택하여 주세요. *

해당 사항에 모두 표시하세요.

- 아동의 가족이며 주양육자
 아동의 가족이며 보조양육자
 같이 살지는 않지만 가족이나 친척 아동의 양육을 주로 담당함
 정부 및 사설 아이돌보미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및 지역 돌봄교사
 공공기관 보육관련 부서 근무
 사설 보육관련업체 근무
 기타: _____

112. 2020년 2월 기준 하루 양육에 보내는 시간을 적어주세요. (주양육자일 경우 아동의 수면시간 포함) *

113. 현재 양육하시는 아이들의 연령대를 '모두' 골라주세요. *

해당 사항에 모두 표시하세요.

- 12개월 이하
 36개월 이하
 만 3~5세
 만 6~8세
 만 9~11세
 만 12~14세
 만 15~18세

이 콘텐츠는 Google이 만들거나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Google 설문지

작은연구 좋은서울 19-11

양육 당사자가 만드는
갈등 없는 아이 키우기

발행인 서왕진

발행일 2020년 8월 12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이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



서울연구원은 서울특별시의 출연에 의해
1992년 10월 설립된 독립적인 재단법인이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의 당면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주요 시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연구·개발함으로써
서울의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의 도시문제에 대한
더욱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보고서, 단행본, 정기간행물 등을 발간하고 있다.

www.si.re.kr
twitter.com/seoulinstitute
www.facebook.com/SeoulInstitute

비매품